

##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범정부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입니다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www.acrc.go.kr

# 국민권익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2012 vol.29 11+12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 권익 구제의 열쇠!!

행정심판이 여러분의 소중한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빠르고, 간편하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드립니다.

[www.simpan.go.kr](http://www.simpan.go.kr)

인터넷으로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십시오.

## 행정심판대상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 각종 국가면허, 인·허가 관련 처분 /  
영업정지·과징금·부담금 부과 처분 / 국가시험의 불합격 처분 / 정보공개 거부 처분 등

## 청 구 방 법

• 인터넷 : [www.simpan.go.kr](http://www.simpan.go.kr) • 팩스 : 02-360-3556 •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 우편·방문 :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군동) 임광빌딩 국민권익위원회

## 소 관 사 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행정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행정기관(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

# 11+ 12

국민권익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12 vol.29 11+12

발행일 2012년 11월 30일  
(격월간, 통권 29호, 비매품)

발행인 박재영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편집인 최학균

주소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군동)

전화 02-360-2761

팩스 02-360-3520

홈페이지 [www.acrc.go.kr](http://www.acrc.go.kr)

블로그 [blog.daum.net/loveacrc](http://blog.daum.net/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http://twit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acrc](http://www.facebook.com/loveac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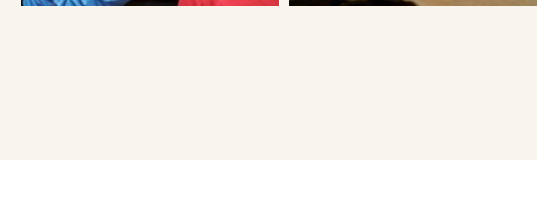
기획 | 디자인 | 인쇄 조선뉴스프레스

외부필자의 원고는 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 / 획 / 특 / 집

- 02 커버스토리 | 국민과 함께한 2012년 국민권익 현장  
수십 년 묵은 주민 집단민원 해결  
청렴한 공직사회 위한 토대 마련
- 06 국민권익이 만난 사람  
2012년 권익위와 함께한 사람들의 평가와 바람
- 08 인터뷰 | 김상식 기획조정실장  
“국민의 입장에 서서 중재자로서 가교역할”
- 10 110 행복레시피  
“10만원이 내겐 목숨값이고 마지막 희망”



## CONTENTS

### 공 / 감 / 누 / 리

- 12 포커스 | 2012 우리 사회의 청렴도는?  
공공기관 680명 집계 “10점 만점에 7.86점”
- 16 조사관의 현장이야기 | 공익보호지원과 김영일  
무자격 약사의 조제약 먹고 부작용 겪자 공익신고
- 18 이슈  
청백리 고장에서 청렴문화 배우세요
- 20 글로벌 권익위  
‘반부패 청렴정책’, ‘국민신문고’ 세계 전파에 나섰다

### 소 / 통 / 누 / 리

- 24 권익위가 갑니다  
충남 공주·천안·아산 이동신문고 민원상담 현
- 26 육천 현장조정회의  
軍사격장 소음문제 해결에 실마리
- 28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담합 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 32 감동 이야기  
백 번째 손님

### 행 / 복 / 누 / 리

- 36 여행 | 순천만 낙조여행  
황금빛 갈대숲에 철새는 날아가고...
- 40 시네마 토크 | <터치>  
약자는 왜 약자를 등치고, 국가는 어디서 잠자고 있나
- 42 건강 다이어리  
중년 건강을 지켜라, 새로이 뜨는 ‘최적 의학’
- 44 역사속 권익  
사헌부 감찰 남신다, 국고횡령 어림없다
- 46 스포츠  
한국 야구, 최강멤버로 WBC 우승 ‘도전’
- 48 컬러&컬처  
을 연발 공연감상은 가족·연인과 함께
- 52 알아두세요  
무상보육 누리과정 3~4세까지 확대 예정
- 53 이 한권의 책 | <옴부즈만, 국민의 친구입니다.>  
국민과 같은 편에 선 ‘민원 해결사’
- 54 뉴스&피플
- 56 독자와의 대화





국민과 함께한 2012년 국민권익 현장  
수십 년 묵은  
주민 집단민원 해결  
청렴한 공직사회 위한  
토대 마련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년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해 곳곳에 쌓인 숙원을 해소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로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펼  
쳐진 한 해였다. 국민신문고와 이동신문고를  
활용하여 해묵은 집단갈등과 민원을 해결하  
는 성과를 거뒀으며,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글·박경아 기자

2012년 9월 13일 강원도 양양  
군 강현면사무소에서는 인근 주  
민대표들과 제102기갑여단과 국방  
시설본부 강원시설단 관계자, 속초  
경찰서장, 양양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가 열렸다. 이  
날 회의는 강현면에 위치하고 있는 육군 제102  
기갑여단 소속 대형 군 차량들이 강현면사무소  
~부대 울타리~장산리 도로 사이를 운행할 때 노  
선의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 주민들이  
도로를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 때문이었다. 권익위  
원회는 도로의 굴곡 부분을 직선으로 개선하도록 조정 중  
재했다. 무려 50년 묵은 민원이 해결된 것이다.

관련 부처와 갈등 조정 네트워크 구축

권익위가 2012년 한 해 동안 펼쳐온 여러 정책 가운데 국민  
들의 피부에 가장 먼저, 그리고 절실하게 와 닿은 결실이 바로  
이와 같이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한 점일 것  
이다.

2012년 신년업무 보고에서 '사회적 갈등 조정·해결 방안'을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던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와 이  
동신문고 등을 통해 집단갈등 사례 30건을 발굴, 권익위원장이  
직접 현장조정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 노력으로 30건 모두  
를 해결해냄으로써(2012년 9월 기준)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특히 이러한 집단갈등 사례 가운데에는 강현면 군차량 이용  
도로 개선 등과 같이 수십 년 묵은 장기 미해결 사안들이 포함되  
어 있다는 점에서 권익위가 대규모 사회적 갈등을 직접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

이와 같은 대규모 갈등 조정은 권익위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  
과 함께 관련 부처, 특히 권익위와 총리실 간의 조정협업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되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권익위는 그동안 국민들의 민원이 각 부처의 미온적 태도나

협업 미흡으로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온 점에 주목해 국무총리실과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효과적인 갈등해결을 모색해왔다. 즉 권  
익위가 현장조사와 조정안 마련을 통한 갈등 조정 실무를 맡고,  
총리실은 권익위 단독조정이 어려운 경우 관련 부처를 독려하는  
등 갈등 해결을 막후에서 지원한 것이다. 이러한 협업은 2012년 상  
반기까지 4건의 갈등 민원을 맡아 '정읍선상 역사 신축 및 지하차  
도 건설 민원'을 비롯한 3건을 해결하는 등 톡톡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

권익위의 '협업'은 총리실에 머물지 않았다. 권익위는 민원 청  
취 단계에서부터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던 민원 청취 기능을 통  
합해 정부 콜센터를 일원화하는 데 앞장섰다. 그동안 각 부처별  
독자적인 콜센터만 35곳이 운영되어왔으나 권익위는 행정 업무  
의 효율을 높이고 대국민 전화 민원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2년 9월 권익위의 110 통합콜센터 등 10여 개 콜센터를 2013년  
상반기까지 과천청사에 합동이전하기로 확정했다.

권익위가 펼쳐온 국민소통과 부처 간 협업의 결실로 '국민신문  
고 전자공공토론 활성화'를 빼놓을 수 없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정책토론'을 뜻하는 전자공공토  
론의 장은 2006년 7월 처음 개설됐다. 그동안 전자공공토론은 행  
정청이 안건을 올리는 ▲전자공청회(입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에 대한 의견 수렴)와 ▲설문조사(구체적 조사내용과 항목을 설  
문으로 작성해 의견 수렴), 행정청과 국민이 안건을 올리는 ▲정책  
포럼(정부정책, 사업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형식의 의견 수  
렴)으로 구성되어 운영돼왔다. 하지만 2008년 이후 3년간 전자공  
청회·정책포럼의 안건당 의견 수는 15.6건과 2.6건, 설문조사 참여  
인원은 48,7명으로 통계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2년 들어 권익위가 부처별로 총괄부서를 지정해 이  
용을 독려하고, 민간 포털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선과 동시에 보  
육·고용·교육 등 2040 세대의 관심사, 학교 폭력과 아동대상  
성범죄 등 사회적 현안들을 발굴하고 상정함으로써 정부기관의  
안전 상정과 국민의 참여율이 크게 향상되었다.

범부처적인 공론의 장 마련과 더불어 2012년을 관통한 권익위  
활동의 또 다른 중심축은 청렴한 사회를 위한 기틀 마련이다.



## 부정청탁금지법안 8월 22일 입법예고

권익위는 2011년 연말부터 2012년 4월 총선까지 고위공직자 뇌물수수 등 권력형 부패·비리사건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자 공직사회의 청렴성 확보를 위한 반부패 청렴대책 마련을 추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2012년 8월 22일 입법예고했다.

그 이전까지 2011년 8월 권익위가 실시한 ‘연고·온정문화로 인한 부정청탁 폐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9%가 “알선·청탁 심각하다”고 답하는 등 우리 사회에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알선·청탁 관행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태였다.

부패 근절 및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패행위의 잠재성을 지닌 이해충돌 관리·방지장치가 필요했으나 형법 등 기존법으로는 규제와 처벌이 어려워 권익위가 이에 대한 보완·방치책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적용대상 기관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고, 공직자·공무수행자·부정청탁자뿐 아니라 금품제공자까지도 적용대상자에 포함시켰다.

또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로 제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벌로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에 따르면 ‘부정청탁’이란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 대비해 소속기관장 등에게 상담·신고·처리절차 등 대응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공직자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관리할 법적 체계를 만들어두었다.

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2012년 1월부터 각종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 대국민 공개토론회, 권역별 법안 설명회,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들 사이에도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정·청탁 문화 개선을 위한 공감대 조성에 힘썼다. 또 부정청탁금지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익위 간부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 전문가 9명이 2012년 2월 22일 청렴포럼을 결성해 청렴실천을 위한 민·관 정책개발에 나섰다.

같은 해 3월 6일에는 청렴도가 낮은 관련 부처를 필두로 하여 6개 기관과 청렴실천을 위한 ‘청렴선도클럽’을 구성, 종전의 권익위 주도의 정책개발과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3각 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정책추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등 청렴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 연구와 실천에 힘을 쏟았다.

권익위는 청렴교육에 대한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관심이 높아져 서울 서대문구 소재 교육장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2012년 10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구 청주지방법원 건물(3224

m²)을 리모델링해 청렴연수원으로 개원했다.

권익위는 이밖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을 구축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왔다.

## 행정심판 포털 등 대국민 서비스 향상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 구축은 2011년 11월 28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핵심 업무로 보고된 사항이다. 그동안 일반국민이 행정청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 등을 당했을 때 업무관할 부서를 알기 어려워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어려우며,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지역에 따라 인용률 편차가 과도하게 발생해 행정심판 청구기관을 찾기 어렵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2012년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정보화전략계획)사업예산 3억원을 확보하고, 2012년 9월 허브시스템 목표모델 개발을 마쳤으며, 2013년 관련예산 38억원이 확정되는 대로 1단계 구축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권익위의 국제활동도 활발했다. 먼저 권익위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1년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전년도에 비해 4단계가 하락, 우리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해외 인식이 부정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 홍보에 앞장서 왔다.

특히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 모델이 2012년 6월 25일 ‘2012년도 유엔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대외신인도와 국가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 권익위 청렴도 측정 모형을 수출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새해에도 사회 갈등을 조기 발굴해 해소하고,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며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 2012년 포털 다음 아고라와 연계한 전자공공토론 실적

| 연번 | 주제                   | 설문조사  | 정책포럼  |        | 비고       |
|----|----------------------|-------|-------|--------|----------|
|    |                      |       | 의견    | 조회수    |          |
| 1  | 영유아 지원, 최선은 무엇인가     | 294   | 371   | 약 1만회  | 정책개선에 반영 |
| 2  | 청년 일자리, 여러분이 만들어주세요  | 275   | 1,925 | 약 10만회 |          |
| 3  | 교육분야 정책토론(4대 주요 쟁점)  | 1,170 | 2,765 | 약 20만회 |          |
| 4  | 주거분야 정책토론(현안 및 정책방향) | 1,311 | 6,245 | 약 59만회 |          |

###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년 주요 현장조정 활동

|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 사례들 |        |                                                                                                                        |
|-----------------|--------|------------------------------------------------------------------------------------------------------------------------|
| 조정일             | 미해결 기간 | 주요 내용 및 해결 방안                                                                                                          |
| 4월 26일          | 30년    | 학교시설지구 해제 - 부산 동래 인락아파트지구 내 미개설된 학교용지에 공장 등 가설건축물이 건축되어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도시계획시설(학교) 해제하도록 조정                |
| 6월 20일          | 49년    | 저유소 내 국방부 관리도로 사용 - 미군 저유소가 들어서면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폐쇄되었으나 현재 저유소 시설이 철거되었으므로 주민들이 저유소 부지를 통행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정식도로 개설하도록 조정 |
| 7월 25일          | 25년    | 매봉산 전차포사격장 환경피해 대책 - 1987년 강원도 홍천군에 매봉산 전차포사격장이 들어선 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도로 확·포장, 사방댐 신설, 방음벽 설치 등 조정                    |
| 9월 13일          | 50년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군차량 이용도로 개선 - 운행로의 굴곡이 심해 양양군 강현면 소재 육군 제102기갑여단 소속 대령 군차량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 도로 굴곡 부분을 직선으로 개선하도록 조정           |

| 다수인 관련 민원 사례들 |                       |                                                                                                                                            |
|---------------|-----------------------|--------------------------------------------------------------------------------------------------------------------------------------------|
| 조정일           | 민원인                   | 주요 내용 및 해결 방안                                                                                                                              |
| 1월 27일        | 경남 양산시 주민 220명        | 경부고속도로변 마을 방음벽 설치 - 고속도로 주변에 콘크리트 방음벽이 세워졌으나, 소음피해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지 않아 방음벽을 보완·설치하도록 조정 합의                                                     |
| 2월 16일        | 부산시 해운대구 재개발 조합원 249명 |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조건 취소 -해운대구가 사업시행인가를 내 줄 때 조합 비용으로 정비구역 밖 하천을 정비하도록 했으나 하천정비사업은 구청이 직접 시행하고 하천에 편입된 건물 등은 조합에서 매입 철거하기로 조정 합의                    |
| 3월 14일        | 울산시 중구 주민 740명        | 울산혁신도시 개발 환경피해 중재 - 울산혁신도시 인접 마을 경계에 옹벽을 설치하려는 계획으로 인해 마을로 통하는 바람 길을 막는 등 불편이 예상되자 옹벽설치를 문덕으로 변경하는 등 조정 합의                                 |
| 4월 17일        | 광명시 소하동 주민 1484명      | 제2경인고속도로변 방음벽 설치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광명역세권 휴먼시아 2, 4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피해 민원을 낸 것에 대해 방음벽 설치를 조정 합의                                                  |
| 5월 15일        | 경북 칠곡군 주민 144명        | 합천창녕보 상류 농경지 침수 피해 원인조사 - 합천창녕보 담수로 인해 연리들 마을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전 문기관에서 원인조사 용역을 파견하도록 조정 합의                                            |
| 6월 28일        | 전북 정읍 주민 7만3888명      | 정읍역사 및 지하차도 백지화 반대 - KTX 정읍역 지하차도 개설 및 선상역사 신축사업이 전면 재검토되자 지역 주민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 정읍역사는 선상역사로 하되 적정 규모로 건설하고, 지하차도는 왕복4차로로 건설하도록 조정 중재 |
| 8월 7일         | 광주 북구 용호마을 주민 199명    | 광주 북구 용호마을 교차로 개선 - 일반 국도 확장공사(도로 1m 높이 증가)로 인해 광주 북구 용호교차로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자 주민불편 해소하도록 조정 중재                                                  |
| 8월 30일        | 경남 밀양 주민 70명          | 밀양 후사포산업단지 주변 마을 소음대책 - 사포일반산업단지 와 인접한 후사포마을 주민들이 소음 등 환경피해를 입지 않게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조정 중재                                                        |
| 9월 6일         | 서울 송파구 주민 228명        | 올림픽공원 내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의 경륜 경정 올림픽공원지점 신축별관에 대해 송파구가 관련 법을 이유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임시 사용승인을 통해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조정 중재     |



## 2012년 권익위와 함께한 사람들의 평가와 바람

# “고충민원 해결사로 자리 잡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해 동안 부패방지과 고충처리, 행정심판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권익위와 함께 해온 각계 인사들이 권익위의 활동에 대해 평가 및 바라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글·권세진 기자



## 민원인 김인수씨 “서로 미루던 민원 현장조정에 큰 감동”

충남 천안시 동면 화덕3리 김인수 이장은 지난 4월 권익위가 천안시청에서 주재한 현장조정회의를 잊지 못한다. 올해 3월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업개발사업 때문에 저수지가 생기게 됐고, 그 때문에 기존 도로가 수몰돼 시내로 가는 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등 주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권익위 주재로 농어촌공사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대체도로를 만들고 버스 운행을 재개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 이장의 이야기다. “갑자기 고립되게 된 주민들이 그동안 지자체와 농어촌공사에 수차례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예산문제 등을 들어 해결되지 않았죠. 그런데 권익위에서 이처럼 주민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불편을 해소하게 돼서 주민 모두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권익



김인수 이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4월 현장조정회의에서 권익위 박성일 상임위원(가운데)과 함께 합의문을 들고 있다.

위 덕분에 지자체에서 보상책임까지 져 대체도로가 개설되고, 이곳 주민들의 주 생활권인 청원으로 바로 연계되는 버스 환승시스템도 만들어진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주변에 고충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권익위를 찾아가라고 권합니다.”

## 110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이용자 이우제씨 “각종 서류발급 도움받고 취업했어요”

권익위는 2012년 4~5월 두 달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공공행정기관 화상수화통역서비스’(110 화상수화통역서비스)를 지난 6월 14일 정식 개통했다. 이 서비스는 수화통역사가 없는 공공기관에서도 위원회의 화상수화 중계(통역)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이 민원신청 등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혼자 공공기관을 이용하거나 장애인증명서 등 서류를 신청하고 받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권익위가 수화통역사를 통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불편함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각장애인 이우제씨는 취업준비 중 이 서비스를 이용해 서류 발급 등에 도움을 받았으며, 최근 취업에 성공했다. 이씨는 “공공기관에서 서류 등을 발급받는 데 불편함이 많았는데 110 화상수화통역서비스가 생겨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일부 기관의 장애인서비스가 생색내기에 그쳤던 것에 대한 섭섭함도 적지 않았다”며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나 같은 사람에게는 꼭 필요하고 고마운 서비스여서 중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 참가 KDI 송인호 박사 “정부의 온라인 소통강화 의지 봤어요”



지난 10월 8일부터 한 달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다음(Daum)이 개최한 ‘다음 주거분야 온라인 대토론’에 참가한 KDI 송인호 박사는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소중한 자리로 정부의 온라인 소통 강화 의지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포털을 통한 온라인 토론회는 젊은층을 상대로 소

통문화를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공공기관이 모두 연계된 국민신문고와 주요 포털이 함께 정책토론을 한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젊은층의 관심 이슈를 집중 발굴해 다양한 분야의 기획토론을 진행하고 있어 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정책기관 관련 온라인 토론회는 접수된 관련 민원과 전문가 의견, 네티즌 의견 등을 한자리에 모으고 유관부처에 제공해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등 단순한 온라인 토론회와 차원이 다른 만큼 앞으로도 활발하게 이뤄졌으면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책 반영 경과 등 사후관리도 신속하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공개토론회 패널 부경북 변호사 “‘부정청탁금지법’ 빨리 입법을”

지난 2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권익위 주최로 열린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을 위한 제2차 공개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던 TY&Partners의 부경북 변호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권익위의 이 같은 활동이 더욱 힘을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널리 생활화된 법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청렴성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자들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필요하며, 공직자 가족들 역시 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기존 관련 법 조항 중 의미가 불명확한 것은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 부패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법안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루빨리 입법이 이뤄져야 합니다.”



김상식 기획조정실장이 말하는  
국민권익위원회 5년

# “국민의 입장에 서서 중재자로서 가교역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8년 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하나로 통합되어 출범했다.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인위적 결합을 통해 탄생했지만, 출범 5년 만에 권익위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났다. 김상식 기획조정실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권익위가 걸어온 발자취를 되짚어 봤다. 글·김대현 기자/사진·염동우 기자

48년간 묵혀뒀던 주민 숙원이 해결되는 순간, 강원도 양양군청 회의실에 모인 주민들은 환호와 박수로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속초비행장 인근에 거주해 온 양양군 강현면 주민들은 이 일대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묶이면서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아왔다. 도로와 송·배전 시설 등 국가 기간망 건설도 ‘올스톱(all-stop)’ 상태였다. 영원한 숙제로 남을 것 같았던 이 사안은 2009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권익위 김문영 조사관 등 담당자들은 현지에서 3개월간 체류하다시피 하며 군과 주민, 주요 행정기관의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를 순차적으로 해결했고 결국 같은 해 11월 18일 모든 이해 당사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권익위는 속초비행장 관련 민원뿐만 아니라 강원도 고성군 포사격장 이전 문제, 전북 정읍역사 KTX 사업 중단사태 등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하며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사로 떠올랐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해 평균 3만건 안팎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올해 접수된 민원은 총 2만8288건으로, 이 가운데 2만7312건이 처리됐다.

권익위 김상식 기획조정실장은 “권익위는 국민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본다. 또 정부 기관의 중재자로서 가교역할을 자임한다. 그 결과 불가능할 것 처럼 보였던 민원들을 해결하며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첨병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1980

년 행정고시 23회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한 김 실장은 철도청·통계청·경제기획원·국가청렴위원회 등을 거쳐 현재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다. 1992년 유엔본부 초대 주재관으로 파견되는 등 국제적 감각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권익위의 지난 5년을 총평한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권익위는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제도개선 등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한국형 국민권익 보호 모델로서 자리를 잡았다. 현장방문(587곳), 이동신문고(172개 지역), 현장조정(128건) 등 국민의 생활 속 권익 현장을 직접 찾아가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폈다. 전자공공토론을 통해 국민의 아이디어가 국가 주요 정책에 반영되는 심의민주주의의 토대도 마련했다. 각종 반부패 시민단체와의 민간협력 증대, UN·OECD·IACA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및 MOU(필리핀 등 5개국)로 권익정책 홍보, 개발도상국 정책 전수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행정학적 관점에서 21세기 행정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

## 권익위 업무와 관련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작년 12월 28일 대통령 업무 보고가 기억에 남는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권익위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체감하고 업무보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셨다. 올해 6월,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이 UN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뉴욕 UN본부에서 우리 정책의 우수성을 브리핑했던 일도 기억에 남는다. 청렴도 측정 업무의 경우 제가 부패방지위(국가청렴위의 전신) 재직시절 아이디어를 냈고 발전시켰던 업무인데, 세계를 대상으로 직접 브리핑을 하니 감회가 남달랐다.”

## 호평을 받고 있는 화상수화통역서비스의 도입 배경은.

“장애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장 큰 고충을 호소하는 청각·언어장애인들도 정부의 민원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 제도가 호평을 받으면서 다른 기관들이 우리에게 서비스 연계를 요청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입될 경우 매년 689억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서비스’로 호평을 받아 106회나 보도됐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 있는 권익위의 행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 10년 넘게 청렴정책의 현장에 있었는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도(CPI)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4점, 조사대상 183개국 중 43위에 그쳤다. 이는 세계 15위 국가경제규모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가청렴도를 OECD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도입, 관행적으로 반복되어온 고위공직자의 친인척 부패 등 권력형 비리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들이 부패 취약분야라고 인식하고 있는 교육분야(국·공립대학, 초·중·고교 학교장)와 기업 투명성 저해분야(국제거래, 금융 등) 등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2013년 이후 권익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 현안은.

“권익위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키워드는 소통, 조정, 제도 업그레이드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소통 측면에서 지난 5년간 추진해온 민원정보분석과 전자공공토론을 더 정교하게 발전시키고자 한다.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다. 조정 측면에서 권익위는 국민과 국가, 국가기관 간 객관적이고 합리적 중재자로서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책임성 있는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청렴연수원 활동방안 등 각종 정책과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 권익위의 갈등 조정역할은 앞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 같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빈부 간, 세대 간 격차뿐만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의 대립 요인도 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갈등을 조정·관리하는 업무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민원 현장에서 수개월간 이해 당사자들과 한술밥을 먹으며 수십 년간 풀지 못한 숙제를 해결한 게 바로 권익위다. 이런 관점에서 권익위의 역할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등과 같은 사안을 권익위가 맡아 중재자로 나섰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 공직의 선배로서 젊은 공무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공직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과거 공무원들은 소위 갑을 관계로 국민을 대했지만, 현재는 수평적 관계에 놓여 있고 국민 만족이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에 놓여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 “10만원이 내겐 목숨값이고 마지막 희망”

이들 일한 임금 못 받은 생계침해 신고 해결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은 돈의 크기로 가치를 판단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이들 동안 단기 근무를 했다는 민원인이 상담을 요청했다. 작년 5월에 일을 했는데 아직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10만원이었다.

“꼬박 이들 동안 길바닥에서 뜨거운 햇살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도로 공사 잡일을 했습니다. 정말 고생스러웠지요. 그 돈 10만원을 못 받은 겁니다. 인력사무소 소장은 ‘내가 이미 다 써버려 당신에게 줄 돈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듣고 나는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에게 10만원이 얼마나 큰돈인지 아십니까? 소장님한테는 그 돈이 하루 술값으로 날려도 되는 돈일 수 있습니다. 하

2007년 5월 문을 연 **국민권익위원회의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연간 200만건 이상 국민의 행복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110여 명의 상담원이 국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상담해온 흔적은 <110 행복레시피>라는 이름으로 권익위에 차곡차곡 저장됩니다. 이 중 생계침해 신고상담을 맡고 있는 한 상담원의 행복레시피를 <국민권익>이 소개합니다.**



지만 나한테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생활비입니다. 작년부터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어 새벽마다 인력사무소 앞을 기웃거리다 가까스로 이틀짜리 일을 하게 됐는데, 그 돈을 해가 바뀐 지금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신고하고 보름쯤 지나 돈 받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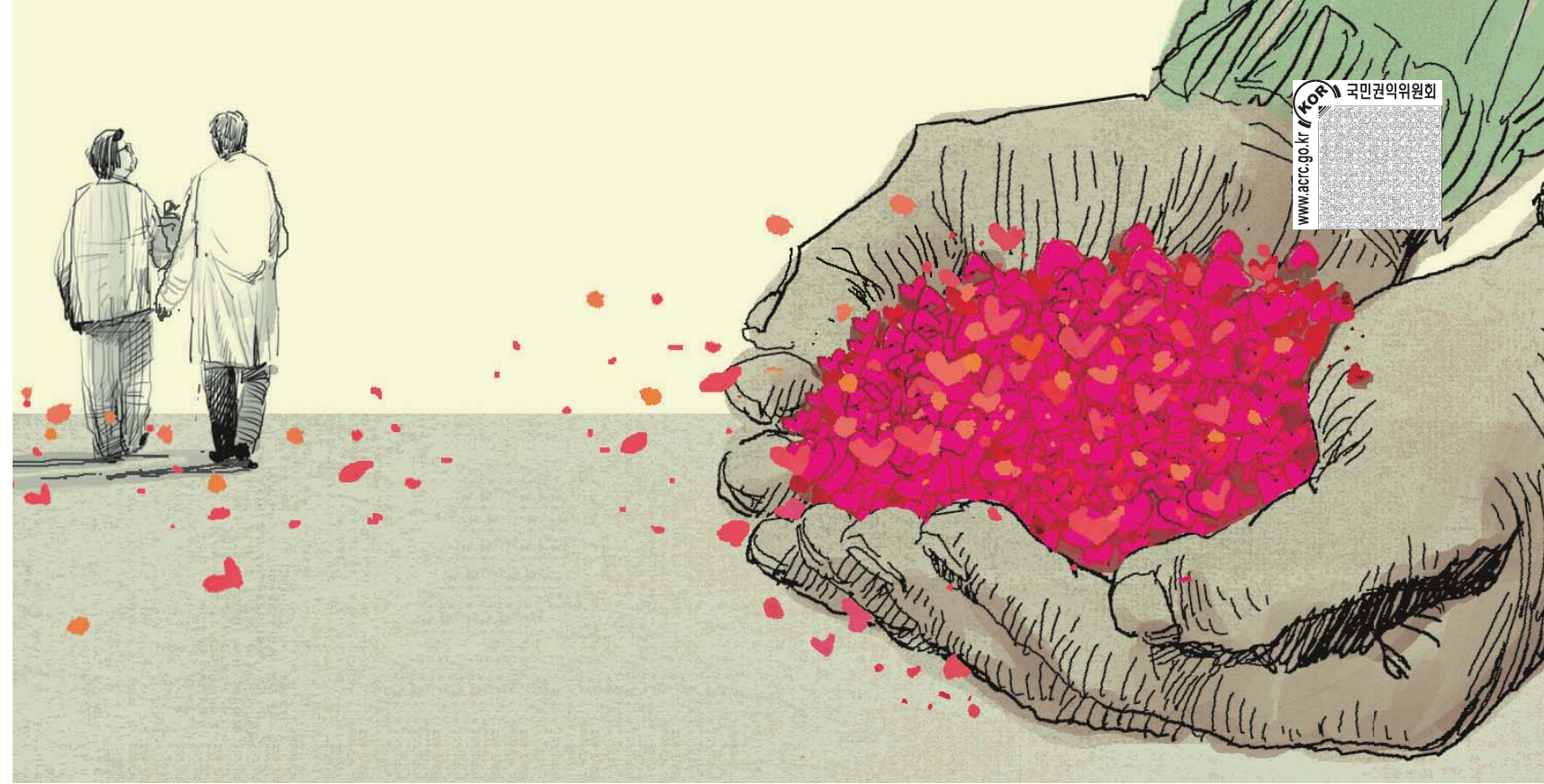
민원인과 상담하면서 나도 모르게 할 말을 잃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원인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드리지 못한 채 신속하게 임금체불 신고를 끝냈다.

며칠이 지난 뒤 임금을 잘 받았는지 안부전화를 드렸더니, 민원인이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110번으로 신고하고 보름쯤 지나서 임금을 받았어요. 지금은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는 임금도 꼬박꼬박 받고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10만원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되기도 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상담이었다. 민원인의 삶이 하루하루 나아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정리·권세진 기자



일러스트 이철원

## 공 / 감 / 누 / 리

포커스 공공기관 청렴도 징계 “10점 만점에 7.86”

조사관의 현장이야기 무자격 약사의 조제약 먹고 부작용 겪자 공익신고

이슈 청백리 고장에서 청렴문화 배우세요

글로벌 권익위 '반부패 청렴정책', '국민신문고' 세계 전파에 나섰다





대한민국 국민이 실감하는 우리 사회의 청렴도는 어떤 수준일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7~11월에 걸쳐 국내 공공기관과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 627개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86점, 국·공립대학의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84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기업인 10명 중 4명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권세진 기자

2012 우리 사회의 청렴도는?

## 공공기관 680명 징계 “10점 만점에 7.86점”

### 법제처·병무청 등 청렴기관 선정

지난 11월 26일 발표한 2012년 627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 결과 전체 공공기관은 10점 만점에 평균 7.86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청렴도는 각 기관의 주요 대민·대관 업무의 민원인 16만854명과 소속직원 6만65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신뢰도 저해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됐다.

특히 올해는 평가 시행 10년이 지남에 따라 측정 모형을 전면 개편했다. 평가자를 기존 민원인과 소속직원뿐만 아니라 해당기관 관련 학회, 출입기자, 국회 보좌관, 산하기관, 직능단체 관계자 등 정책고객 1만5491명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조사 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86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일반행정기관에서는 법제처, 수사·단속·규제기관에서는 병무청이 각각 최고 점수 기관으로 조사됐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전광역시가, 시·군·구에서는 경기 군포시, 충북 증평군, 서울 영등포구가 각각 최고 점수를 얻었고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한국남부발전(공기업 부문), 축산물품질평가원(준정부 부문), 한국수출입은행(금융 공직유관단체 부문), 부산환경공단(지방공사 공단 부문), 한국교직원공제회(기타 공직유관단체 부문)가 기관 유형별 최고 점수기관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자는 민원인 중 1.0%(16만854명 중 1587명)로 2011년(0.8%)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의 제공액은 금품과 향응 모두 6만~15만원이 가장 높은 비율(각각 20.1%, 29.3%)을 차지하였으며, 제공빈도는 금품은 1회, 향응은 2회(각각 29.5%, 25.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1000만원 이상의 고액제공은 전체 제공자의 2%(1587명 중 27명)에 해당하였다. 제공 이유는 관행상·인사차(44.6%), 신속한 업무처리(27.1%) 등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2011년에 기관 외부의 적발로 드러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사유로 인한 행정기관 부패행위 징계는 169개 기관에서 총 68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에서 나타난 총 부패금액은 85억2900만원이며, 부패금액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주요 최상위·최하위기관

| 분류                  | 최상위기관      | 최하위기관      |
|---------------------|------------|------------|
| 중앙행정기관 중 일반행정기관     | 법제처        | 법무부        |
| 중앙행정기관 중 수사·단속·규제기관 | 병무청        | 경찰청        |
| 광역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제주특별자치도    |
| 시·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
| 공기업                 | 한국남부발전     | 한국수력원자력    |
| 금융 공직유관단체           | 한국수출입은행    | 금융감독원      |
| 준정부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지방공사 및 공단           | 부산환경공단     | 인천도시공사     |
| 기타 공직유관단체           | 한국교직원공제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분포는 100만~500만원 미만(40.7%), 100만원 미만(28.1%)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1억원 이상의 고액부패로 인한 징계자도 전체의 2.2%(15명)에 달했다.

정책고객 중에서는 산하기관의 상급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금품 등 제공률이 3.6%이었고, 상급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금품 등 제공률도 이와 동일한 3.6%로 조사되어 감독기관과 산하기관 간 부패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청 정책고객 중 학부모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간접 경험률은 28.5%에 달해 최고의 경험률을 기록했다.

향후 권익위는 청렴도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2013년 측정을 면제하고, 개선도가 높은 경우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청렴도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청렴도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토록 권고하고, 그에 따른 이행실적·성과 등에 대해서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통해 철저히 관리·반영할 예정이다.

### 국·공립대 청렴도 “10점 만점에 6.84점”

국·공립대의 청렴도는 공공기관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국·공립대학 청렴도 순위〉에 따르면 전국 35개 국·



공립대학의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84점이었다. 종합 청렴도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한 대학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8.07점)이고 다음으로 광주과학기술원(7.70점), 경남과학기술대학교(7.66점) 순이며, 최하위 대학은 경북대학교(5.42점), 부산대학교(5.37점), 부경대학교(5.30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처음 실시한 이번 국·공립대 청렴도 평가는 대학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 3684명이 평가한 '계약분야 청렴도'와 학교 내부 전임교수·직원·시간강사·조교 등 5909명이 평가한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등 두 분야로 나눠 측정됐다.

평가대상 학교는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5개 법인과 서울시립대 등 2개 공립대학, 28개 국립대학이다. 두 분야 중 계약분야 청렴도는 전체 평균 8.88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학교 내부 구성원들이 평가한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는 6.5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계약분야 청렴도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학교 측에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는지, 언제 제공했는지 등을 조사해 측정했다. 또 연구행정분야 청렴도는 대학 내부 인력들이 ▲연구비를 위법·부당 집행 또는 횡령 했는지 ▲부적절한 대외활동을 했는지 ▲인사와 관련해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받았는지 등을 조사해 측정했다.

계약분야 청렴도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는 평가자는 전체의 1.6%였다. 제공 시기는 명절이나 학교 행사와 같은 특별한 때가 36.8%로 가장 많았고, 업무처리 중은 31.6%였다.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이유로는 '일처리에 대한 감사'로 제공했다는 응답이 57.9%를 차지했고 '관행 및 인사차'라는 응답도 26.3%였다. 금품 제공 시 1회 평균 금액은 188만6000원, 향응 제공 시 1회 평균 금액은 25만1000원 규모였다.

조사에 따르면, 연구행정분야 응답자 5909명 중 12.6%인 746명이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578명(9.8%)은 연구비 횡령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인사와 관련해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9.1%였고, 운영비나 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험이 있다는 답도 9.2%나 됐다.

권익위는 대학 특성에 부합하는 별도 평가항목을 추가 개발해 내년부터 교육대학교와 2년제 국·공립대학까지 평가대상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 국내기업인 40% “우리 사회 부패”

한편 권익위가 지난 7~9월 조사해 10월 21일 발표한 <2012 국내기업인 및 외국기업인 부패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기업인 700명 중 40.1%는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답했고, 이는 2011년 26.7%에 비해 13.4%포인트나 오른

수치다.

조사대상 국내기업인 중 13.3%는 직간접적으로 부패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최근 1년 뇌물(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한 기업인은 1.6%였다. 부패의 유형으로는 '금품수수'와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알선 및 청탁'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부패발생 주체와 그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도 이뤄졌는데, 기업인들은 부패발생 주체를 정치인(67.0%), 고위공직자(17.2%), 중하위공직자(7.7%) 순이라고 보았고, 부패발생 원인은 '부패유발적 사회문화'를 꼽은 기업인이 40.3%에 달했다.

특히 기업인의 36%가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28.9%에 비해 7.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또 공직사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37.0%)는 응답이 개선됐다(31%)보다 많았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조사 결과 국내기업 종사자들과 달리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기업 종사자들은 우리 사회 및 공공부문에 대한 청렴 정도를 훨씬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외국기업인들은 우리 사회에 대해 13.6%만이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 대상 외국기업인은 250명으로, 주한 외국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중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이다. 또 외국기업인은 공공부문 부패(17.2%)보다 민간부문 부패(20.8%)가 더 심각하다고 보았다.

또 외국기업인은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공직사회가 개선됐다는 답이 35.6%였고 개선되지 않았다는 답은 7.2%에 불과해 국내기업인의 응답유형(개선 안 됨 37.0%, 개선됨 31.0%)과 차이를 보였다. 정부정책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신뢰도가 국내기업인보다 높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공직사회의 실제 부패수준에 비해 국내기업인들로부터 비판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젠 약사가 면허증 사진과 같은지 꼭 확인”

무자격 약사의 조제약 먹고 부작용 겪자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들은 전국에서 밤낮없이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은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정리·권세진 기자



눈이 충혈되고 각막이 덮이는 증상이 있어 병원을 찾은 A씨. 의사는 결막염이며,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흔히 걸리는 질환이라며 처방전을 써주었다. A씨는 큰 병이 아니라는 말에 안도하며 인근 약국에 들렀다.

그런데 이 약국의 약사, 조금 이상하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에 소화제 성분이 마침 약국에 없다면, 그 약은 빼겠다고 하지를 않나, 처방전에 써 있는 안약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 한참을 허둥대는 것이 아닌가.

A씨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약사가 맞느냐고 물었다. 그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약사가 맞다고 했다. 왜 그렇게 약을 못 찾느냐고 물으니 수백 가지 약을 다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미심쩍긴 했지만 설마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어 답해주는 대로 약을 받아 나왔다.

그런데 약을 먹은 다음날부터 이유 없는 복통이 시작되었다. 약을 거르면 괜찮다가, 그 약을 먹으면 여지없이 복통이 시작되었다. 아무래도 약의 부작용인 듯싶었다.

### ‘약사’의 허둥대는 모습에 의심

하는 수 없이 다시 병원을 찾아가 처방받은 약을 보여주고 증상을 말했다. 약을 확인한 의사는 자신이 처방해준 대로 조제가 되지 않았다고 화를 낸다. A씨는 처방한 위장약이 빠진 것 때문에 부작용을 겪은 것이다.

약을 조제해줄 때부터 미심쩍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싶어 A씨는 화가 났다.

그리고 그대로 참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게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찾은 곳이 우리 위원회였고, A씨는 약사의 조제 행위를 담은 동영상과 자신이 받은 조제약 등을 증거로 공익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뒤 조사관은 우선 약을 조제해준 사람이 약사가 맞는지부터 확인을 했다. 동영상을 보니 이 사람은 약사 가운데 입지 않은 채 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약국에 걸려 있는 면허증의 사진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도 드러났다.

이제 무자격 약사 행위 의혹을 조사할 차례였다. 관할 감독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하였고, 관할 감독기관에서는 현장에 나가 약국 개설자와 약을 판매하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약국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내용을 A씨에게 알리니, 그냥 두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뻔했다며 신고를 잘한 것 같다고 흐뭇해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하고, 바로잡아 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이런 경우 경찰 수사에서 벌금이 나올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니,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 “우리가 사회를 지키고 바로잡아야”

이 일이 있고부터 약국에 갈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벽에 걸린 약사의 면허증 사진과 내 앞에 서 있는 약사가 같은 사람인지, 약사는 가운을 잘 챙겨 입고 있는지, 능숙하게 약을 조제해주는지 유심히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다.

눈을 조금만 크게 뜨면 사회 곳곳에 우리가 지키고 바로잡아야 할 일들이 숨어 있다. 그래서일까. 국민들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 그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 청백리 고장에서 청렴문화 배우세요

전남 장성군 체험프로그램에  
올해 전국서 1만여 교육생 몰려

전라남도 장성군의 ‘청렴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해 9월부터 청렴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이하 청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10월 현재 전국 65개 기관에서 온 1만여 명의 교육생이 참가했다.

참가한 기관은 다양하다. 여성가족부,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중앙부처부터 전라남도, 경남 창원시청, 충남 부여군청 등 지방자치단체, 목포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등 학교, 하나대투증권 등의 기업체까지 여러 분야의 조직에서 청렴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장성군을 찾았다. 참가한 교육생들의 반응도 좋다. 여러 번 참가한 기관도 많은데 충남 부여군청은 12번이나 교육에 참가했다.

장성군은 인구 4만7000명의 비교적 작은 군이다. 장성군의 특산품 중 하나는 바로 ‘교육’이다. 1995년부터 18년째 운영해온 ‘21세기 장성아카데미교육’을 통한 교육혁신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물론 일본에도 제법 알려져 있다. 이런 토대 위에서 청렴 교육도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청렴 교육은 1박 2일 프로그램과 2박 3일 프로그램 등 2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참여 기관이 원하는 기간을 고를 수 있다. 세부 프로그램에는 특강과 현장체험 등이 있다.

청렴 교육이 큰 성과를 거둔 비결로는 우선, 장성군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들 수 있다. 올해 장성군청에서 근무하는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중앙부처와 16개 시·도 및 교육청을 찾아갔다.

전라남도 장성군이 ‘청렴문화’ 체험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장성군은 청백리 밥상을 먹으며 아곡 박수량, 지지당 송흠 등 선조들의 청렴함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강의를 듣고, 피톤치드 자옥한 축령산 편백나무숲을 거니는 ‘청렴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렴에 대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글·하주희 기자



전남 장성군 ‘청렴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편백나무숲을 거닐고 있다.

청렴 교육에 대해 설명하며 교재와 팸플릿을 배부했다. 공무원들이 직접 기관을 찾아가 ‘세일즈’를 한 것이다. ‘맞춤형 세일즈’도 펼쳐다.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대상인 800여 기관에 청렴 교육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 장성 출신 청백리들 일화를 교육과 연계

아무리 참여 예상자들을 직접 찾아 참여를 요청해도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장성군의 청렴 교육 프로그램에는 ‘아곡 박수량’, ‘지지당 송흠’, ‘조림왕 임종국’ 등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청렴과 연관된 흥미로운 일화를 갖고 있는 장성군 출신의 인물들이다.

사실 장성군에는 조선시대부터 ‘문불여장성(文不如長城)’이라는 말이 내려오고 있다. 조선 말기 한 시대를 풍미했던 흥선대원군이 호남지역의 팔불여(八不如)를 언급하면서 “호남지역에 문장을 논함에 있어 장성만 한 곳이 없다”라는 말을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그만큼 문장가를 많이 배출한 곳이라는 뜻이다.

풍수지리학자들은 장성군이 백암산, 축령산 등 크고 작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 모양이 마치 두 마리의 용이 고을을 감싸고 있는 형상이라 명당 중의 명당이라고 말한다. 훌륭한 인물을 많이 배출하는 곳이라는 설명이다.

아곡 박수량은 조선 명종 시기 인물이다. 지금의 장관급인 한성판윤과 호조판서 등을 지냈다. 참판시절 박수량은 부친상을 당했다. 관습대로 고향에 내려와 3년상을 치르는데, 그가 상을 치르는 사람답지 않게, 호의호식을 한다는 보고가 조정에 올라왔다.

암행어사를 보내 진상을 확인해보니 호의호식은커녕 끼니 때가 돼도 굴뚝에 연기가 오르지 않고, 집은 낡아 비가 썰 지경이었다. 이에 명종은 크게 탄복해 아곡리 하남골에 99칸 집을 지어 하사했다. 그 집의 이름은 ‘청백당(淸白堂)’이었다. 청백당은 정유재란 때 소실되어 지금은 편백만 문중에서 보관 중이다.

박수량은 세상을 뜨면서 “묘를 크게 쓰지 말고 비석도 세우지 말라”는 유언을 했다. 명종은 박수량의 죽음을 알고는, 서해안 암석을 비석으로 그에게 내리며 ‘비문 없이 그대로 세우라’고 했다고 한다. 박수량의 청렴함을 빗돌에 새기는 것이 오히려 그의 청렴함

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름도 직위도 새겨져 있지 않은 ‘백비’의 유래다.

지지당 송흠은 중종 시기 인물로, 다섯 번이나 청백리 포상을 받은 인물이다. 오십 년 넘게 관직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하인이 겨우 굶주림을 면할 정도의 생활을 했다고 한다. 송흠의 청렴함을 칭송하는 일화로 ‘삼마태수’가 있다.

지방관이 부임지를 옮길 때 전임 고을에서 가장 좋은 말 일곱 마리를 받는 관례가 있었는데, 송흠은 부임할 때 본인과 부인, 모친이 탈 말 세 마리만 가져갔다고 한다. 이 일을 칭송하기 위해 생긴 말이 삼마태수다. 이렇듯 실존했던 인물들의 일화를 듣고 현장답사를 하는 교육 내용이 참가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 자연식·축령산 편백나무숲도 히트 상품

청렴 교육은 식사시간에도 이어진다. 바로 ‘청백리 밥상’이다. 친환경 재료로 만든 1식 4찬의 소박한 식사는 그 이름에 걸맞으면 서도, 남도의 깊은 맛까지 담아낸 ‘히트 상품’이다.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편백나무숲인 축령산을 둘러보는 일정에도 ‘스토리텔링’을 접목했다. 축령산의 편백나무숲은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기로 유명하다. 피톤치드는 숲의 수목이 배출하는 휘발성 물질로, 흡입 시 뇌의 알파파가 활성화돼, 머리가 맑아지고 안정된 느낌을 준다고 한다.

이 편백나무숲을 조림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춘원 임종국 선생이다. 임종국 선생은 1956년부터 축령산 일대 임야 약 100헥타르를 사들여 편백나무를 심었다. 먹고살기도 어려웠던 시대에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임업에 투자한 것이다.

1968년 큰 가뭄이 왔을 때에는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한밤중이 되도록 물지게를 지고 산길을 오르내렸다는 일화도 전해 내려온다. 1987년 별세한 임 선생은 2005년 수목장으로 안장되었다. 편백나무숲을 거닐며 숲을 만든 이의 뜻을 기릴 수 있다.

김양수 장성군수는 “청렴문화 체험교육의 전국적인 참여로 장성이 교육의 고장, 배움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청렴과 관광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장성을 전국 최고의 교육관광 지자체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 ‘반부패 청렴정책’, ‘국민신문고’ 세계 전파에 나섰다

뉴질랜드·몽골·인도네시아 방문해 협의 방안 등 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뉴질랜드, 몽골, 인도네시아를 잇달아 방문해 세계 관련기관들과 반부패 청렴정책에 대한 협의방안을 논의하고 국민소통시스템인 ‘국민신문고’를 전파하는 등 세계를 향한 활발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글·권세진 기자

## 뉴질랜드

###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회·총회 등 참석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9~17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열린 제10회 세계 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및 총회, 월드 컨퍼런스에 참석해 세계 관련기관들과 함께 국민소통 및 21세기 옴부즈만의 기능강화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방안을 마련했다.

총회에 앞서 11~12일 열린 IOI 이사회에는 각국 대표들뿐만

아니라 권익위 위원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김기선 국제교류담당관 등 출장단 3명이 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보고, 회원자격 심사결정, IOI 규정 개정과 발전방안 등 의제가 논의됐다. 특히, 2011년 세계 옴부즈만협회에 가입신청을 했던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준회원으로 가입이 결정되기도 했다. 12일 열린 아시아지역 미팅에는 권익위를 비롯해 아시아지역 기관회원들이 참석했으며 향후 전자투표를 통해 지역이사를 선출기로 합의했다.

13일 열린 IOI 총회에서는 베벌리 웨켄 회장, 존 윌터스 제1부 회장, 다이엔 웰본 제2부회장, 알란 라이 재무이사 등 새 집행부가 선출됐다. 이밖에 예산 보고와 외부감사 결과, 내년 이사회 개최지 결정, 2016 월드 컨퍼런스 개최지 제안 등 안건이 논의됐다.

김기선 국제교류담당관은 14~16일까지 3일간 열린 월드 컨퍼런스에 참석했으며, 15일 컨퍼런스에는 발제자로 나서 국민과 행정기관 간 소통과 분쟁해결 시스템인 ‘국민신문고(e-people)’에 대해 소개했다.

또 컨퍼런스 세션에 참가해 외국 옴부즈만 제도 및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한편 15일 컨퍼런스에서 권익위 대표단은 일본 대표단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자료집을 배포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 몽골·인도네시아

### 반부패 협의회 열고 기술지원 컨설팅

한국의 반부패 청렴 정책을 전파하고 반부패 협력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11월에는 몽골과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반부패 기술지원에 나섰다.

권익위는 11월 15일 몽골 울란바토르 소재 부패방지청에서 반부패 협의회를 개최했다.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양국 간의 반부패 업무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15일부터 2일간 개최된 한·몽골 반부패 세미나에서는 권익위가 최근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열린 IOI총회



웰링턴에서 열린 IOI 이사회



IOI 총회 참석자들



IOI 아시아지역 미팅 참석자들





몽골 부패방지청에서 열린 반부패협의회

이해충돌 방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경험을 소개하고, 몽골이 올해 제정한 〈이해충돌방지법〉을 토대로 양국의 이해충돌방지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아울러 유엔반부패협약(2003)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부패 국제협력 및 국제사법공조 관련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0년 몽골에 전수한 청렴도 측정, 반부패 경쟁력 평가 제도의 성공적인 현지 정착을 위한 컨설팅도 병행하였다. 몽골은 권익위로부터 청렴도 측정 시스템을 전수받아 2010년에 최초로 7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10월 제2차 평가를 실시했다.

참고로 청렴도 측정 시스템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것으로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부패방지 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이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패예방 정책으로 인도네시아·부탄·태국 등에 전수되었으며, 최근 러시아·터키 정부가 주관하는 국제회의에서도 소개를 요청받은 바 있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매년 10%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06년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2007년 독립 반부패 기구로 몽골부패방지청을 설치했다. 또 최근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부정부패 척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미나에 참석한 광형석 신고심사심의관은 “이번 국민권익위 대표단의 몽골 방문으로 몽골의 반부패 역량이 강화되고 한·몽골 간 부패방지 협력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11월 26~28일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6차 한·인니 반부패 협의회와 인도네시아 정부 주관 국제 반부패 컨퍼런스에 참석하였다.

권익위는 28일 열린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난 2006년 12월 체결한 한·인니 반부패 협력 MOU를 바탕으로 한 협력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3년(2013~2015)간 MOU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였다.

26~27일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제 반부패 컨퍼런스는 반부패 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관한 원칙을 마련하는 주제로 ‘반부패 기구의 독립성’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으며, 권익위는 우리 위원회의 기능 및 주요 반부패 정책을 집중 홍보하였다.

또 권익위 대표단은 28일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을 방문하여 내년 2월에 만료되는 한·인니 옴부즈만 협력 MOU 연장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상대국 교민의 고충처리 현황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였다.



일러스트 이철원

## 소 / 통 / 누 / 리

권익위가 갑니다 충남 공주·천안·아산 이동신문고 민원상담 현장

육천 현장조정회의 군사격장 소음문제 해결에 실마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담합 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감동 이야기 백 번째 손님





## 수년 된 주민 간 진입로 민원 즉석 합의서에 “이제 됐슈”

충남 공주·천안·아산 이동신문고 민원상담 현장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에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출동하는 ‘이동신문고’가 지난 11월 14~26일 충청남도 공주·천안·아산에서 열렸다. 각 분야 조사관들은 지역 주민들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공무원들과 연계해 민원을 처리하는 등 고충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다. <국민권익>이 11월 14일 충남 공주시청에서 열린 이동신문고 현장을 찾아갔다. 글·권세진 기자 / 사진·조준우 기자

14일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동신문고 현장에는 시작시간인 10시부터 민원인이 모여들어 북적였다. 공주뿐만 아니라 청양, 예산, 당진, 홍성 등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방문해 성향을 이뤘다. 이동신문고 조사관들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행정 전문가들로, 토지와 복지 등의 지자체와 관련된 민원은 즉시 시청 공무원들과 연계해 처리하고 있다.

아침부터 이동신문고를 찾은 오모씨와 박모씨는 각자 소유 부동산과 관련해 오랜 기간 분쟁을 벌여온 당사자들이었다. 오씨의 주거지 진입로가 박씨가 소유한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오씨의 통행 문제를 놓고 박씨 가족이 소음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 진입로가 지나치게 노후해 안전상 문제가 많은 만큼 보수나 재조정이 필요한데, 이를 누가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조사

반은 시청 도로교통과 담당자에게 연락, 이동신문고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조사관과 함께 의견을 나눴고 현장에서 합의서를 작성했다. 오씨는 “몇 년 동안 해결이 안 돼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 정도였는데 권익위가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줘 다행”이라고 말했다.

공주시 중학동에 사는 차명기씨는 현재 거주 중인 새마을3길에 주차장이 없어 주민들이 심각하게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거주가구의 대부분이 업무용 자동차나 농기구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차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주민 간에 잦은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조사반은 현장 조사 후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지자체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민원을 접수했다.

### 농약안전장비 구입비 국가지원 방법 불분

농민 오갑주씨는 농민들이 방제복 등 농약안전장비를 구입하는 데 대한 국가지원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오씨는 “방제복과 보안경, 마스크 등 농약안전장비를 농민들이 새로 구입할 때 비용의 80%를 국가가 보전하게 돼 있는데, 농민들로부터 비용을 100% 걷은 후 20%를 제하고 돌려주는 방식이어서 농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마을 이장인 오씨는 “일일이 문서에 개인의 도장을 받아 돈을 건여야 하는 데다 반드시 해당자 본인 통장으로 각각 입금해줘야 되는 시스템이어서 불편하고, 농민들의 편의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시스템인 만큼 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6·25 참전 용사인 부친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박모씨의 민원에 대해 권익위는 서면 및 구술 자료를 정리해 오면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모씨는 본인의 집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 중인 현장의 토사가 유입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생활과 관련된 민원도 적지 않았다.

### 독거노인 찾아가 기초생활수급 등 상담

한편 14일 오후 이동신문고 조사반은 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했다. 기초생활수급 및 의료급여 지원을 원한 민원인

들이 장애 또는 병으로 이동신문고를 직접 찾아오기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공주시 교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찾아간 것.

공주시 교동에 사는 이모(70세)씨는 장애 6급으로 혼자 살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아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이씨는 “기초생활수급자만이라도 되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원 신청 방법도 모르는 데다 혼자 시청이나 동사무소 등에 가기 어려워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동신문고에서 전화상담을 해주고 직접 방문까지 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조사반이 두 번째로 찾아간 민원인 김모(여, 77세)씨는 병원에 있어 직접 상담을 하지 못했다. 권익위 전성희 조사관은 “두 분에 대해 부양가족관계 등을 조사, 해당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지자체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44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총 1412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고, 그중 약 20%, 285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올해 12월에는 경상남도 밀양시, 김해시, 창원시 등 3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며 내년 1월에는 충남 보령·서산·태안에서 이동신문고가 진행된다.





# 軍사격장 소음문제 해결에 실마리

주민과 관련기관 참여한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기로 합의

지난 11월 16일 충북 옥천군청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양수리 사격장 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조정회의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회의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권익위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주재로 열리고 있다. 글·권세진 기자

이번 조정회의는 옥천군수와 육군제37보병사단111연대장, 옥천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옥천읍 양수리 주민 1864명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였다.

1997년 충북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에 1만2595㎡ 규모로 설치된 양수리 사격장은 육군 제37보병사단이 운영하는 자동화사격장으로, 지난해부터 옥천·보은·영동 지역의 대대 장병과 예비군, 경찰 등으로 이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사격 실시 시간이 대폭 늘어났고 이에 따라 인근 주민과 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커졌다. 사격장 인근에는 민가 수십여 가구를 비롯해 공장과 축사 등이 있다.

## 주거지역 생활소음 허용치 크게 웃돌아

양수리 주민들은 군부대와 경찰들이 수시로 주간 및 야간사격을 하고 있으며, 박격포 사격까지 하고 있어 소음 등 생활에 불

편이 많으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옥천군과 육군 제37보병사단, 옥천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해왔다.

실제로 이 사격장 인근 주택에서 측정한 소음은 평균 58dB·최고 87dB로 나타났다. 이는 소음진동법에 정해진 주거지역의 생활소음 허용치(45~55dB)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주민들은 “저녁 시간에 사격이 있는 날은 전화통화와 TV시청도 불가능할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들은 민원인들이 원하는 사격장 이전 및 폐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시해왔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로 민원을 제기했고, 10월에는 인근 지역 주민 1865명이 서명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권익위가 현장조정에 나서게 된 것.

권익위는 7월 23일 민원을 접수한 후 9월 6일 1차 방문조사에



국민권익위원회 정현율 상임위원(가운데)이 13일 오후 충북 옥천군청에서 민원인과 옥천군수(왼쪽 세 번째), 육군제37보병사단111연대장(왼쪽 두 번째), 옥산경찰서장(왼쪽 첫 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개최해 양수리사격장 소음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군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토록 중재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섰고 이후 당사자 의견청취와 이견조율 등을 위해 6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 협의와 중재를 계속했다.

권익위의 조정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양수리 사격장을 둘러싼 사격훈련 시간 조정, 소음감소 방안, 등산로 개방, 주민 안전대책, 사격장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선정 등 이 민원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한자리에 참여하는 ‘양수리 사격장 갈등조정협의회’(이하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운영기로 합의하고, 16일 조정회의 현장에 모였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주민대표 2인과 각 기관별 대표 2인씩 총 8인으로 구성되며, 협의회 활동기간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조정에 합의하고 향후 합의 내용을 상호 존중해 이행

하며, 합의사항이 최종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이행상황을 매분기 말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기로 했다.

## “모두가 상생하는 합의안 도출 기대”

현장조정회의에 참석한 이해당사자들은 권익위가 마련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협의회를 통해 성실히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영만 옥천군수는 “소음경감 대책 추진 등 군부대 자구책을 통한 대주민 갈등해소 노력과 민·관·군·경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육군 제37보병사단장을 대리해 참석한 허영호 111연대장은 “민원해결을 위해 사격 전 사격 실시 여부 통보, 야간사격 및 축사탄 사격 통제, 분기별 행정관서와 주민 대표 반상회를 통해 민원발생 예방활동 추진, 소음기 장착 추진, 방음벽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충환 옥천경찰서장도 “민·관·군·경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적극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할 예정이며,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원신청인 대표인 옥천읍 양수리 강구봉 이장은 “그동안 훈련이 있는 날은 밤 11시까지 사격이 이뤄져 잠을 못 자거나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등 일상 생활 불편은 물론, 축사 가축 불임 등 생계와 관련해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할 길이 열려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정현율 상임위원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현안인 양수리 사격장 문제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상의 합의안이 도출돼 갈등 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담합 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대학·대학원생이 출산·육아휴학 땐 ‘별도휴학’ 인정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과 제도, 관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한 해 동안 분주했다. 특히 2012년 하반기에는 담합행위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대학(원)생에 대한 모성보호를 강화하며 많은 국민들이 부당함을 호소하는 장례식장 관리를 강화하고 입찰·택지공급·채당금 지급 등에서 실정을 감안한 행정심판 결과를 도출하는 등 국민의 편에 서왔다. 글 박경아 기자



## 담합 이전 가격으로 인하 유도 방안도 마련

밀가루, 설탕, 설탕, 고추장, 소주, 우유, 라면, 음료, 치약, 벽지, 비료, 학원수강료, 그리고 휘발유·경유·LPG···,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이나 서비스 품목들이다. 이렇게 광범위한 품목을 대상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 품목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담합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09년 1465건이던 것이 2010년 2580건, 2011년 3383건으로 늘었다.

이러한 품목들의 경우 기업의 가격담합이 있더라도, 소비자가 담합 피해 배상 소송을 할 경우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 소비자의 전체 피해규모는 크지만 개개인의 손해액이 적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담합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합행위 제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10월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의 부당이득이나 담합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어 손해액의 세 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등 실제 손해 범위를 넘어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적극 검토된다.

또한 소액 피해자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대량 당사자의 소송결과가 피해집단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도 검토된다.

그리고, 담합을 한 기업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중대·명백한 담합행위를 유형화한 고발의무 규정을 법률에 명시토록 해 임직원의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담합으로 오른 가격이 과징금 부과 후에도 내려가지 않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담합 이전 가격으로 인하를 유도하는 적극적 시정조치를 내리는 방안과 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을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된다.

## 재학 연한 초과로 제적·출산포기 방지

앞으로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이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학하는 경우 군복무로 인한 병역 휴학과 같이 일반적인 휴학이 아닌 ‘별도휴학’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학(원)생의 자녀도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임신·출산·육아휴학이 별도휴학으로 인정되면 일반휴학기 간과 재학 연한에 산입되지 않는다. 군복무로 인한 병역 휴학은 학교가 정한 휴학 외에 별도의 휴학으로 인정되고 있다.

권익위는 범국가적으로 출산 장려와 육아부담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임신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전국 47개 국·공립 대학교 및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고, 170여 개 사립대학교 등에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11월 5일 발표했다.

지난 9월 실시된 권익위의 실태조사에서 전국 47개 국·공립 대학(4년제) 중 31개(66%) 대학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별도휴학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아르바이트, 취업준비 등의 사정으로 일반휴학을 이미 했던 경우 임신·출산·육아휴학으로 인해 재학 연한을 초과하면 제적당하거나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육아를 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도 미흡했다. 영유아보육법령상 맞벌이 부부의 자녀는 보육 우선제공 대상이지만, 학업과 취업준비에 육아까지 병행하는 학생 부모는 우선권이 없어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별도휴학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학칙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현재 턱없이 부족한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해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에 앞서 맺은 기술지원협약서에 금액 표기 의무화

#○○대학 병원에서는 특수기술을 보유한 A업체와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한 후(협약서에 금액은 명기되어 있지 않음) 랜장비 구매 계약 건을 발주했고, B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여 위 랜장비 구매 계약 건을 낙찰받았다. 그러나 기술개발자인 A업체는 기술지원협약에도 불구하고 금액 및 거래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낙찰자인 B업체에게 기술지원협약서 발급을 거부했다.

#○○시의 불법주정차 단속상황실 구축 영상통제관계시스템 구매설치 계약의 경우 공공기관으로부터 낙찰자가 낙찰받은 금액이 1억6530만원(설치비 포함)이었다. 그런데 기술개발자는 1억9500만원(설치비 제외)의 금액을 낙찰자에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낙찰자는 이 계약을 포기해야 했고,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다.

위 사례에 등장하는 ‘기술지원협약서’는 특수한 성능 및 품질 등이 포함된 물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개발자가 해당 물품을 이상 없이 낙찰자에게 공급하고 기술지원을 약속하는 문서다. 또 ‘기술지원협약서’는 기술지원협약서가 원활하게 발급되도록 하기 위해 입찰공고 전 발주기관과 기술개발자가 체결하는 협약으로, 기술개발자가 낙찰자에게 기술지원협약서를



발급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특수한 성능·품질 등이 포함된 물품을 구매할 때 낙찰자는 기술개발자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낙찰자와 기술개발자 간에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대가와 관련하여 마찰이 발생해왔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월 1일 밝혔다.

이 권고안은 우선, 공공기관 등 발주처와 기술개발자 간에 체결하는 기술지원협약서에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기술지원협약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자가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탓에 낙찰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내리던 관행도 개선토록 했다.

#### 장례식장 물품 강매행위 등 처벌 강화

엄숙하고 정중해야 할 장례식이 장례식장 측의 생화나 관, 장의버스 등 장의물품 고가 강매로 어지럽혀져 온 관행에 대해 권익위가 차단에 나섰다.

권익위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장례식장의 물품 강매나 폭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장례물품 강매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장례식장을 처벌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0월 30일 공개했다.

최근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장례식장에서 유족에게 물품을 강매하거나 폭리를 취하고,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유족들의 불만민원이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민원 온라인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108건도 물품 강매와 현금결제 강요, 현금영수증 편법발행이나 거부 등에 대한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장례식장은 누구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으로 설치할 수 있고, 최소한의 시설 설치기준이나 보건위생 관리기준이 없어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어왔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장례식장의 특정 물품 강매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장례식장에서 제공하지 않는 물



품을 사용했다고 유족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는 근거도 만들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장례식장 영업을 이용하는 유족과 문상객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기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부실한 장례물품에 대한 불만을 줄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사정보시스템(e-하늘)의 장례식장별 물품 가격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게재토록 하라는 권고도 같이 했다.

#### “부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땀 위반 동기·내용 등 감안해야”

부당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에 따라 제재 처분의 강도를 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계약을 이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비규격품을 납품하였다가 이를 바로 시정한 회사에 대하여 조달청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6개월 동안 입찰을 못하도록 한 것은 가혹하므로 제한기간을 3개월로 변경한다고 결정했다.

11월 15일 공개된 행정심판 재결례에 따르면 조달청은 2011년 도분 제설용 염화칼슘 공급업체를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선정하는 입찰 공고를 했고, 행정심판 청구인 회사는 낙찰 금액 31억원으로 1만4000톤을 공급하기로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입찰에서 탈락한 다른 회사인 C사가 이미 물량의 대부분을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선점해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낙찰 금액을 넘는 32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C사와 계약하고 자신의 회사를 대신해 조달청에 공급하도록 했다.

그런데, C사는 염화칼슘 공급 과정에서 중량을 속이거나 제설 효과가 떨어지는 비규격품을 납품했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청구인 회사는 즉시 해당 물품을 교환 또는 교체하는 동시에 일정 부분은 자신이 직접 구매하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조달청과의 계약을 이행했다.

청구인 회사는 염화칼슘의 부정한 납품과 검수가 이전부터 계속됐다고 판단하여 국무총리실에 비규격품을 검수한 담당 공무원을 조사하도록 요청했으며, 조달청은 C사가 “중량을 속이거나 비규격품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계약자인 청구인 회사의 입찰참가를 6개월 동안 제한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위는 ▲청구인 회사는 어쩔 수 없이 C사로 하



여금 계약을 대신 이행하도록 했고 ▲그동안 허위서류를 제출한다거나 비규격품을 납품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전력이 없으며 ▲C사가 중량미달제품 및 비규격품을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곧바로 해당 제품을 교환하거나 교체하는 등 여러 근거를 놓고 볼 때 청구인 회사를 부정당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질병요양에 의한 거주지 부재자는 공익사업 이주자 대상에 포함시켜야”

공익사업 시행 지구에서 계속 거주하다 가족의 질병요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했었다는 이유로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을 받지 못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의 행정심판이 나왔다.

11월 8일 중앙행정심위가 공개한 행정심판 재결례는 정신질환을 앓는 아들과 함께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서울 송파구 거여동) 내에 1989년부터 거주하던 청구인의 청구사례였다.

청구인은 아들의 병으로 인한 이웃의 소음피해 우려와 아들을 돌봐줄 다른 보호자들(딸들)이 사는 곳 근처로 가고자 2003년 7월 거주지를 떠났다가 2008년 2월 다시 기존 주거지로 돌아왔는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을 2007년 8월 5일로 정하면서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자 중앙행정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 등이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을 받지 못하는데, 청구인은 기존 주택에 계속해 거주하지 않았고, 아들의 질병요양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아들의 입원기간이 두 달간으로 짧다”는 이유를 들어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위는 ▲청구인 아들의 정신병 때문에 방음 및 요양을 위하여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보다는 방음이 좋고 누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의 다른 곳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순한 내부지침에 따라 질병요양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백 번째 손님

김병규

국밥집 주인 강씨 아저씨는 손님을 기다리며 신문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점심 시간이 정해져 있는 회사원들이 한 차례 다녀간 뒤였습니다. 그때 문이 벌름히 열렸습니다. 강씨 아저씨가 신문을 밀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문이 열리면서, 머리카락이 허연 할머니가 들어섰습니다. 그 뒤에 열 살도 채 안 돼 보이는 소년이 마치 꼬리를 잡고 있듯 할머니의 한 손을 꼭 잡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옷차림이 남루하고, 얼굴에는 가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어..., 쇠머리국밥 한 그릇에 얼마나 하는지...”

“4000원입니다.”

할머니는 몸을 조금 돌려 허리춤에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머니 안에 든 동전까지 조물락거리며 헤아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자리에서 소년을 앉히고, 할머니 자신은 맞은편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한 그릇만 주세요.”

“네?”

“난 점심을 이미 먹었다요.”

“아, 네 맛있게 말아 드리지요.”

이어서 주방에서 나온 국밥 한 그릇을 강씨 아저씨가 손수 할머니와 소년의 가운데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구수한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아가야, 어서 많이 먹어라.”

소년은 한 숟가락 폭 떠서 입에 막 넣으려다가는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점심 먹었어?”

“그럼, 배불리 먹었다. 너나 어서, 어서 먹어라.”

그제야 소년은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게걸스레 먹는 동안 할머니는 깍두기 하나를 손으로 집어 입에 넣고 오물오물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어느새 국밥 한 그릇을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뚝배기를 얼굴에 뒤집어쓰듯 하고서 마지막 국물 한 모금까지 후룩 마신 뒤 뚝배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서 혀로 입술을 핏앓았습니다. 그 사이에 할머니는 몇 차례나 입안에 가득 고인 침을 소리 안 나게 몰래 삼키느라 애썼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씨 아저씨가 웃음을 띤 채 그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늘 참 운이 좋으십니다. 할머니는 오늘 우리 집의 백 번째 손님입니다.”

“뭐라고요?”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강씨 아저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린지 몰라 불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그날의 백 번째 손님한테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작은 복권을 하나 타신 셈이지요.”

할머니는 긴가민가하면서도 무척 기뻐하는 기색을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말이요?”

“아, 그럼요. 오늘은 그냥 가시고 다음에 또 오세요.”

한 손으로 돈주머니를 꼭 쥐고 할머니는 조글조글한 주름살 속에 숨겨두었던 반색을 죄다 드러내며 환히 웃었습니다.

문을 열어주며 할머니와 소년을 배웅하는 강씨 아저씨는 그보다 더 밝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2개월쯤 뒤, 그 할머니와 손자가 또 강씨 아저씨네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그들을 알아본 강씨 아저씨는 대뜸 “할머니께선 참 복이 많으시군요”라며 반겼습니다. 이번에도 백 번째 손님의 행운을 그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씨 아저씨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다가 길 건너쪽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낯익은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왔던 그 소년인데 오늘은 혼자였습니다. 한참 유심히 살핀 뒤에야 소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강씨 아저씨네 국밥집에 손님이 한 사람 들어올 적마다 돌맹이 하나씩을 땅에 그린 동그라미 안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심 손님이 거의 끊어질 무렵 그 돌맹이를 헤아려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기껏해야 돌맹이가 50개도 못 되었던 것입니다.

사흘째 내리 그 아이를 본 강씨 아저씨는 아내를 보내 무슨 까닭인지 넌지시 알아보게 했습니다.

한참 만에 돌아온 아내의 얼굴빛이 그리 밝지 못했습니다.

“여보, 야단났어요. 내일 모레가 재 할머니의 생신이래요. 할머니께 국밥을 대접해드리려고 언제쯤 오면 백 번째 손님이 될 수 있는지를 셈하고 있나 봐요.”

이미 백 번째 손님에 대한 사연을 알고 있던 그의 아내가 알려주었습니다.

“야단났군!”

그때부터 강씨 아저씨의 고민은 시작되었습니다. 한나절 내내 ‘이거 참 야단인 걸’을 연발하던 강씨 아저씨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러더니 전화기 앞에 붙어 앉아서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댔습니다.



“과장님이세요? 모레 점심 시간에 저희 집에 오십시오. 별일은 아니고요, 평소에 도와주셔서 점심 한 끼 대접하려고요. 친구분들하고 같이 오시면 더 좋습니다.” “여보게, 날세. 모레 점심 시간에 우리 집에 오게. 무슨 날은 아니고, 그냥 점심 한 끼 같이 먹고 싶어서 그래. 직원들하고 함께 와.”

강씨 아저씨는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수첩을 뒤적이며 한참 동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강씨 아저씨네 국밥집 건너 길가에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혼자자 아니고 할머니랑 같이 있었습니다. 길바닥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소년과 할머니가 마주 앉았습니다. 강씨 아저씨네 국밥집에 손님이 한 사람 들어갈 적마다 동그라미 속에 돌맹이를 하나씩 넣었습니다.

어느 날과 달리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였습니다. 소년이 벌떡 일어나서, 손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할머니, 어서어서! 다음이야.”

소년이 서둘러 할머니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국밥집 문 앞에서 할머니가 조용히 소년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네가 먼저 들어가라.”

“안 돼. 할머니가 백 번째가 되어야 한단 말이야.”

소년이 돌아서 할머니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 뒤에서 발뒤축을 들며 할머니의 귀에다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내가 사드리는 거야.”

할머니는 더없이 행복한 얼굴로 소년을 돌아다보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날, 진짜 백 번째 손님이 된 할머니는 따뜻한 쇠머리국밥 한 그릇을 대접받았습니다.

아내가 강씨 아저씨한테 다가가서 소리를 죽여 말했습니다.

“여보, 저 아이에게도 한 그릇 줘시다.”

강씨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췌, 그런 말 말아요. 재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그러면서 턱끝으로 할머니와 소년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천연덕스럽게 혼자서 국밥을 후룩후룩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너 정말 배 안 고파? 좀 남겨줄까?”

“난 안 먹어. 정말 배불러. 이 봐.”

소년은 짐짓 배에 바람을 가득 넣어 앞으로 쭉 내밀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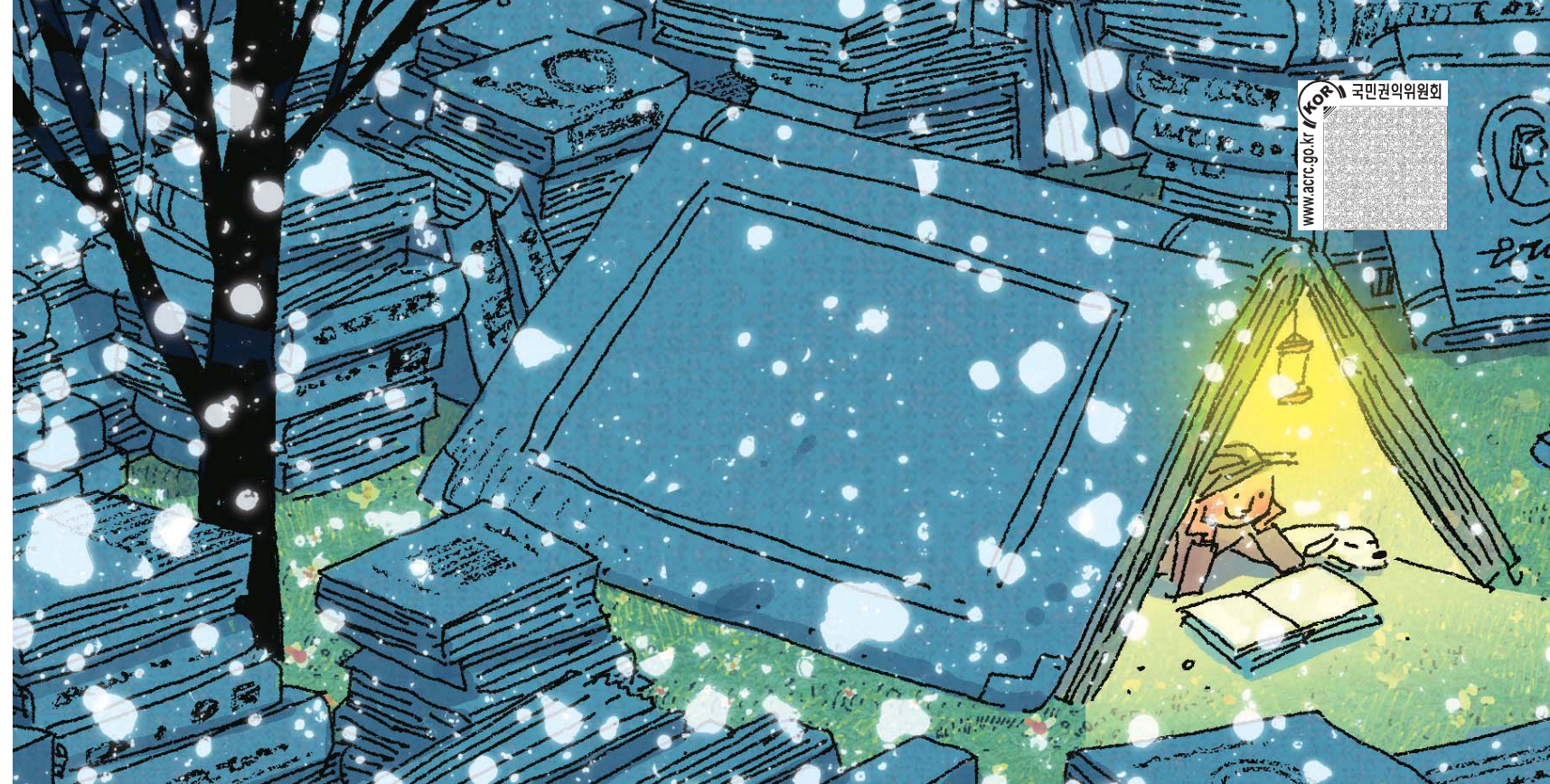
그러고는 깍두기 하나를 손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음 넣고 아작아작 씹었습니다. 전에 할머니가 하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뒤로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씨 아저씨네 국밥집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정말로 백 번째 손님이 되어 국밥을 공짜로 먹는 사람이 날마다 생겼습니다. 이백 번째 손님이 되어 함께 온 사람들까지 공짜 국밥을 먹는 일도 가끔 있었습니다.



일러스트: 윤원호



일러스트: 이철원



## 행 / 복 / 누 / 리

여행 순천만 낙조여행

시네마 토크 <터치>

건강 다이어리 중년 건강을 지켜라, 새로이 뜨는 '최적 의학'

역사속 권익 사헌부 감찰 남신다, 국고횡령 어림없다

스포츠 한국 야구, 최강멤버로 WBC 우승 '도전'

컬처&컬처 올 연말 공연감상은 가족·연인과 함께

알아두세요 무상보육 누리과정 3~4세까지 확대 예정

이 한권의 책 <옴부즈만, 국민의 친구입니다.>

뉴스&피플

독자와의 대화



순천만 낙조여행

# 황금빛 갈대숲에 철새는 날아가고...

12월엔 순천으로 가보자.  
광활한 갈대밭 사이 저무는  
낙조를 보며 한 해를 정리해보자.  
선암사, 송광사의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해보는 것도 좋겠다.  
순천은 가족여행지로도 좋은 곳.  
순천만에서 생태탐방을 즐길 수도 있고  
낙안읍성에서 선조들의 옛 생활을 체험해볼 수도 있다.  
남도의 넉넉한 밥상도 여행을 풍성하게 해준다.

글과 사진: 최갑수 (여행작가)

저녁이면 순천만 갈대밭은 황금빛으로 물든다.



초겨울의 시릴 듯 푸른 하늘, S자를 그리며 유유히 바다로 흘러가는 강, 갯벌을 진보라로 물들이는 칠면초 군락, 반공을 수놓은 철새 무리, 겨울 햇살에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는 갈대밭. 12월의 순천만 풍경은 '하늘이 내린 정원'이라는 찬사가 아깝지 않다.

전남 여수반도와 고흥반도 사이에 자리한 순천만은 거대하다. 간조 시에 드러나는 갯벌의 면적만 해도 12km<sup>2</sup>에 달한다. 전체 갯벌의 면적은 22.6km<sup>2</sup>나 된다. 여기에 총면적 5.4km<sup>2</sup>에 달하는 드넓은 갈대 군락이 펼쳐져 있다. 국제보호조인 흑두루미를 비롯해 재두루미, 노란부리저어새 등의 철새들이 몸을 쉬어가고 다양한 갯벌 생물들과 습지식물들이 함께 어우러진 생명의 보고다. 흑두루미는 전 세계에 고작 9500여 마리가 생존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순천사에서 내륙습지를 복원하고 비행에 방해가 되는 전봇대 282개를 뽑는 등 생태환경을 개선하자 순천만을 찾는 개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 세계 5대 연안습지로 생태관광 1번지

순천만은 거대한 크기만큼 유명하다. 세계 5대 연안습지 가운데 한 곳이며 2006년에는 연안습지 중 최초로 '람사협약'(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 각국의 협력으로 맺어진 조약)에 등록되기도 했다. 2008년에는 국가명승지로 지정되었다. 지난해에는 세계적 여행가이드북인 '미슐랭 그린가이드'에 선암사, 송광사



대대포구. 소설가 김승옥이 무진이라고 했던 곳이다.

와 함께 '매우 추천하는 곳'(★★★)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순천만을 여행하는 첫걸음은 대대포구에서 시작한다. 대대포구는 소설가 김승옥이 그의 소설 〈무진기행〉에서 '안개나루'(霧津)로 묘사했던 곳이기도 하다.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뺨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던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 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恨)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女鬼)가 뿜어 내놓은 입김과 같았다.'

어수선했던 대대포구는 말끔하게 정비됐다. 지금은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이 자리잡고 있다. 갯벌과 철새에 관한 다양한 전시물과 영상물 등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아기자기한 체험시설이 많은 데다 갯벌과 갈대, 습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 순천만을 찾는 가족이라면 꼭 한 번 돌아볼 만하다.

자연생태관을 나서면 본격적인 갈대숲 탐방이 시작된다. 순천만 갈대밭을 여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걷기다. 대대포구의 무진교를 건너 갈대밭 사이로 난 나무데크를 따라가면 된다. 높낮이가 없이 평탄해 아이들과 노약자도 쉽게 오갈 수 있다. 생태체험선을 타고 연안습지를 만날 수도 있다. 순천만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순천만 앞바다까지 나갔다가 돌아오는 코스로 왕복 35분 정도가 소요된다. 이 외에 갈대열차를 타고 갈대밭 사이로 펼쳐진 뚝방길을 다닐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대대포구 주변 독길을 돌아보는 방법도 있다.

#### 조계산에 등지든 선암사와 송광사

순천만 전체를 한눈에 감상하려면 용산전망대에 오르는 것이 좋다. 용산은 용이 하늘로 오르다 순천만 풍광에 반해 머물렀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야트막한 산이다. 갈대밭 탐방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약 1km만 더 걸으면 전망대 정상에 닿을 수 있는데, 이곳에서 서면 둥근 갈대군락들 사이로 S자를 그리며 미끄러져 나가는 물길을 볼 수 있다. 해질 무렵이면 수많은 사진애호가들이 순천만의 낙조를 담기 위해 찾는 촬영포인트이기도 하다.



고즈넉한 정취의 선암사.



순천만의 별미 장어구이.



조계산 보리밭길의 보리밭 풍경.

조계산에 자리한 천년고찰 선암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절이다. 백제 성왕 때인 529년 아도화상이 세운 고찰로 태고종의 본산이다. 매표소에서 절까지 이어지는 숲길은 이팝나무, 서어나무, 굴참나무, 팽나무, 조팝나무, 산딸나무, 느티나무가 울창하다. 길은 마냥 걷기 좋아서, 천천히 걷다 보면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씻기는 기분이다. 길이 끝나는 곳에는 승선교가 있다. '선녀들이 승천한다'는 뜻을 가졌는데, 아치형의 다리는 이름만큼이나 아름답다. '삼인당'이라는 작은 연못과 전통 방식으로 띄운 차를 내는 찻집인 '선각당'도 선암사가 주는 소소한 즐거움이다.

선암사의 또 다른 명물은 해우소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문화재로 지정된 화장실이다. '정(丁)'자형으로 우아하게 들어앉은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생긴 화장실'답다.

선암사 반대편의 조계산 자락에 송광사가 자리한다. 양산 통도사, 함천 해인사와 더불어 삼보사찰(三寶寺刹)로 꼽히는 명찰로, 국사 16명을 배출했다. 영정을 봉안하는 국사전과 목조삼존불감, 고려고종제서 등 국보 3점과 하사당, 영산전 등 보물 16점 등 국가문화재 21점이 있다. 선암사와는 굴목이재라 불리는 산길을 통해 이어지는데, 산길은 8km 정도로 부지런한 걸음으로 3시간이면 걸어볼 수 있다. 산길은 편백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등이

터널을 이루고 있어 트레킹을 즐기기에 좋다. 선암사 쪽에서 오르는 것이 편하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낙안읍성에도 가보자. 초가집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전통마을이다. 웅장한 성문을 지나 마을에 들어서면 마치 조선시대로 거슬러 온 듯한 느낌을 받는다. 흙벽에 잿빛 초가지붕을 인 초가집들, 돌담 사이로 작고 예쁜 고샅길이 나 있고 고샅길마다 몇백 년은 된직한 아름드리 느티나무와 팽나무가 서 있다. 이리저리 엿쳐 있는 비좁은 고샅길을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푸근해진다.

#### 낙안읍성과 남도 먹거리는 즐거움

낙안읍성민속마을은 전시와 관광을 위해 만들어놓은 민속촌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살아 있는' 마을이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주민이 초가에서 생활하며 민박집과 주막, 기념품 가게 등을 운영한다. 마을을 둘러싼 성벽을 따라 걸으면 낙안읍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성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40분~1시간 정도다.

순천시에 자리한 순천드라마세트장은 2006년에 개장한 오피세트장이다. 엄마 아빠는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곳이다. 드라마 '자이언트' '사랑과 야망' '에텐의 동쪽' 등 시대극 촬영 장소로 유명하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시대상을 만날 수 있다. 순천의 60~70년대를 그대로 재현한 소도읍 세트장부터 60년대 태백 탄광마을, 70년대 서울 달동네, 80년대 서울 번두리를 완벽하게 재현해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났을 듯 즐겁다.

순천은 맛도 풍성하다. 별미 중 별미는 짬뽕이다. 짬뽕어는 미꾸라지와 비슷하게 생겼다. 청정 갯벌에서만 산다. 짬뽕어를 된장을 푼 물에 시래기, 호박, 무를 넣고 끓여 탕으로 즐겨 먹는다.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아 처음 먹는 사람도 거부감이 없다. 들깨 향이 향긋하게 우러나는 국물 맛은 개운하다. 장어도 유명하다. 대대포구 앞에 장어구이집이 많다. 순천만 갯벌장어는 흙냄새와 비린내가 전혀 없고 육질이 쫄깃하다. 선암사 앞 상가 지구에는 조계산에서 자란 산나물로 만든 산채비빔밥, 산채정식 등을 내는 집이 많다. 어느 집에 가나 후덕한 전라도 인심을 맛볼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약자가 약자를 흠치는 사회다. 만약 복지제도가 잘되어 있다면 서민들이 서로에게 늑대가 되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겠나. 민병훈 감독의 영화 <터치>는 한국 사회를 약육강식 밀림으로 묘사한다.

글·정재형 (동국대 영상영화학과 교수)

## 약자는 왜 약자를 등치고 <터치> 국가는 어디서 잠자고 있나

주인공 수원(김지영 분)은 밥벌이를 제대로 못하는 남편 탓에 딸 하나를 키우면서 죽지 못해 살아간다. 그녀는 간병인이다. 하지만 병원 몰래 가족에게 버림받은 환자들을 돈을 받고 요양원에 입원 시킨다. 환자를 고려장시키는 가족들은 우리 사회의 차가운 기류다. 종교요양원은 그들을 받아들여 편안한 임종을 맞게 하지만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줘야 할 일이다. 돈 없는 약자에게도 국가는 치료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 국가를 탓하지만 국가는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부자들을 탓한다. 좀 더 많은 세금이 서민들 복지에 돌아간다면 그들이 길에서 쓰러져 죽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수원은 자신의 딸을 유괴한 학생이 사는 집에서 그 엄마가 형편없이 앓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동사무소에 신고한다. 동사무소 직원은 접수한 후 가서도 좋다는 일상적인 한마디를 던진다. 격분한 수원에 직원 한마디 더 한다. 그렇게 급하면 당신이 가서 하

라고. 결국 수원은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지만 돈이 없어 쫓겨난다. 이제 이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돈 없는 환자가 내쫓기는 장면이 연출된다. 가슴에 흐르는 억울함과 눈물을 흘려야 소용없다. 그녀가 기댈 곳은 역시 종교요양원밖에 없다. 하지만 그녀가 그동안 돈을 받고 환자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안 신부는 거절한다.

### 국가 시스템에 폭발하는 분노와 배신감

한편 동식(유준상 분)이란 남편은 뭐하는 인간인가. 전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사격선수 출신의 중학교 사격부 코치지만 알코올중독이 문제다. 순진하고 융통성 없는 성격도 한몫한다. 사회는 승냥이인데 그는 고양이보다 더 순하다. 가족을 생각한다면 자신의 성격 정도는 참아야 할 텐데 앞뒤 판단을 못하고 계속 사고를

친다. 그 쫓덩이들은 수원의 등짝을 두들겨댄다. 게다가 동식이 차로 친 학생에게 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원은 환자에게 돈을 받고 몸까지 준다. 동식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코치 재계약 조건으로 육탄공세를 펼치는 중년 여성 이사장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다. 더러운 심사를 달래기 위해 그는 금주율을 깰 수밖에 없었고 음주운전으로 뺨소니 사고까지 낸 것이다.

그가 알코올중독자가 된 건 다 피치 못할 이유가 있다. 아내의 미움을 받는 순간만 보면 동식은 무능력하고 한심하지만 알고 보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대목이 등장한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참아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 참자니 미치겠고 차라리 술을 먹고 잊어버리는 게 낫다. 그런 상황에서 동식은 술을 먹게 되고 수원은 점점 광포한 여자로 돌변한다.

이런 상황에 느닷없이 고라니가 나타난다. 도시 한복판에 고라니가 서 있다. 참 이상하다. 수원은 고라니를 처음 본 건 아니지만 그 풍경이 낯설어 한동안 쳐다본다. 동식 역시 자신을 따라다니는 고라니를 신기하게 쳐다본다. 동식은 다시 술을 먹고 아이를 차로 친다.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든다. 만인이 만인의 늑대가 되는 순간이다. 내가 살려면 남을 죽여야 한다. 동식은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이를 총으로 쏜다. 술 깨고 일어나 보니 그건

고라니였다. 수원에게 나타나고 동식에게 나타났던 고라니였다. 헛걸 본 것이다. 고라니는 서민들을 상징한다. 힘없고 나약한 고라니는 승냥이와 악으로 대변되는 도시의 아스팔트 위에서 헤맨다. 동식은 자신의 처지와 같은 아이를, 고라니를 죽일 수밖에 없다. 자기가 살려면 그 수밖에 없다.

### 영화 속의 고라니는 선량하고 나약한 인간 연상

고라니는 도시와 대비된다. 순진하고 말 못하고 약한 존재. 도시는 금속성의 차가움과 돌의 딱딱함, 도로와 건물의 정돈으로 대변된다. 냉엄함과 부드러운 생명이 충돌한다. 고사리손처럼 유약하고 선량한 서민 동식과 수원은 박제된 도시의 한복판에서 먹고살기 위해 뛰어다니지만 질주하는 차에 치여죽을 것처럼 아슬아슬한 고라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깊이 성찰하게 만든다.

서민이 서민을 할퀴고 뜯어먹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사회. 벽을 주먹으로 치고 그제 몽개질 정도로 억울함이 넘실대는 영화다. 분노가 차올라 피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오른다. 서민들은 국가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줄 안다. 하지만 국가가 돈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걸 안다. 철썩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심정이다.



## 중년 건강을 지켜라 새로이 뜨는 ‘최적 의학’

중견기업에 다니는 회사원 권모(45) 부장은  
혈압이 고혈압 진단 기준을 넘지 않지만, 아주 정상은 아니다.  
공교롭게도 콜레스테롤 수치도 그런 상황이다.  
고혈압 환자도 아니고, 고지혈증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상은 아니다. 환자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다.  
권 부장의 그런 질병 지표는 매년 하는 건강검진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글·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영상의학과 전문의)

권 부장의 경우 병원에 가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걸까. 이처럼 콜레스테롤 수치·혈압·혈당 등 질병 지표가 당장 약물치료를 할 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정상은 아닌 애매한 사람들이 많다. 환자와 ‘건강인(人)’ 사이에 낀 ‘경계인’이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20(mm/Hg) 미만, 이완기 혈압이 80 미만이다.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피를 뿜어내기 위해 수축할 때의 혈압, 이완기는 심장이 확장할 때의 혈압을 말한다. 고혈압 기준은 수축기 140 이상, 이완기 90 이상이다. 이런 사람은 혈압 약을 복용해야 한다. 하지만 그 사이에 속하는 혈압은 고혈압 전(前) 단계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수축기 혈압이 135이고, 이완기 혈압이 85면 제대로 된 ‘낀 세대’이다. 40대 남자는 거의 절반이 여기 ‘잠재 고혈압’에 속하는 것으로 나온다.

### 혈압 등 정상치 벗어나면 약물 투여

혈액 속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mg/dL)을 넘어가면 고(高)지혈증 상태로 진단한다. 이들은 약물치료 대상이 된다. 정상치는 200 이하이다. 당연히 그 사이는 ‘고지혈증 전 단계’로 분류된다. 비만 인구의 급증으로 고지혈증 전 단

계 그룹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콜레스테롤 중 심장과 혈관을 갉아먹는 주범인 ‘LDL(저밀도 단백)’ 콜레스테롤이 특히 문제가 된다. 이 수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160을 넘어가면 약물치료 대상이 된다. 100 이하여야 안심이 된다. 통상적으로 130~160 사이면 LDL 콜레스테롤 낀 계층이다.

당뇨병에도 잠재 위험그룹이 있다. 당뇨 전 단계는 ‘공복 혈당 장애’로 불린다. 8시간을 금식하고 나서 체크한 공복(空腹) 혈당이 126(mg/dL)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분류된다. 정상 공복 혈당은 100 이하이다. 그 사이 100~125는 아직 당뇨병은 아니지만, 혈당 분해 기능에 이상이 온 것으로 간주한다. 당뇨병 위험 그룹이다. 매년 공복 혈당 장애의 2~3%가 당뇨병으로 넘어간다.

다른 특별한 위험이 없다면 의사들은 이런 ‘낀 세대’들에게 운동과 식이 조절을 권한다. 그것만 열심히 하면 3가지 질병 지표 모두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식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려면 먹지 말아야 할 게 너무 많다. 고기는 물론, 기름으로 조리된 음식은 다 멀리해야 한다. 콜레스테롤의 70%는 간에서 지방을 원료로 자체 생성되기 때문이다.

혈압은 짠 음식을 피하고 체중을 줄여야 떨어진다. 하지만 고혈압 환자들 말에 따르면, 하루 세 끼를 자신이 직접 짜지 않게 조리한 음식으로 채우지 않는 한 소금과 간장 간이 듬뿍 들어간 음식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회식이 잦고 외식도 흔해 그런 음식을 먹지 않고 버틸 사람은 별로 없다.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섭취 칼로리를 조절해야 하는 ‘혈당 낀 세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그들에게 밥상과 술판 앞에서 유난 떠는 것을 유난히 못 참는 우리의 문화가 항상 부담이다. 본인의 의지만 갖고 안 되는 게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법이다.

운동으로 이들 지표를 떨어뜨리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40분 이상 숨이 차는 운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생활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낀 세대’들은 죄책감을 안고 산다. 뭔가 하긴 해야 하는데 몸과 상황이 따라주지 않으니 말이다.

그래서 새로이 뜨는 건강법이 ‘최적 의학’이다. 질병 상태에서 치료 효과를 근거로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기존 방식이라면 ‘최적

의학’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바로 적극적으로 약물을 투여하여 신체를 항상 최적 상태로 만들자는 것이다. 물론 이때는 질병 상태가 깊지 않기 때문에 최소 약물 용량이 쓰인다.

### 생활습관 교정 병행하면 효과 높아

어떻게 보면 제약회사가 듣기 좋은 의학 같지만, ‘낀 세대’들을 그대로 놔두면 대다수가 결국 환자로 넘어가고 그때는 이미 혈관과 신체가 망가져 있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최적 의학’의 근거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된다는 말이 있다. 무지하게 바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국판 호미 의학’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

그런 방침에 따라 환자 턱밑까지 온 사람들이 약물을 복용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생활습관 교정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위험 인자 여러 개가 동시 다발로 있거나 복부비만이 있으면, 먼저 3~6개월간 저(低)칼로리 식사, 규칙적인 운동, 저(低)염식, 고(高)섬유질 식사 등을 해보자.

공복 혈당 장애의 경우 생활습관 교정을 했을 때 약 60%가 당뇨병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생활습관 교정을 하면 체중·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 대부분이 동시에 떨어져, 건강에 주는 이득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 낀 세대들은 질병 상태가 그다지 깊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생활습관만 잘 교정해도 약물치료에 버금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50대에 들어서면 신체 상태가 40대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운동법 식단구성 등 전반적인 생활방식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



# 사헌부 감찰 납신다 국고횡령 어렵었다

최근 여수시 공무원이 거액의 돈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다.  
개인의 도덕심이 밑바닥이어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관리감독 체계가 미비해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이 일을 키웠다고 한다.  
견물생심이라고 사람들은 대부분 돈 앞에서 약해진다.

글·김정미 (사나리오 작가)

나라일이든 회사일이든 돈에 관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늘 스스로를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돈된 시스템 안에서 정기적인 감사를 받아야만 자칫하면 빠질지도 모를 부패의 늪을 비켜 갈 수 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돈과 관련된 일을 하면 한순간 욕심이 생겨 부정이 자행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그래서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청대(淸臺)를 제도화시켜 부정을 예방하려 하였다.

청대란 직역하면 ‘대간을 청한다’라는 말로, 여기서 대간이란 사헌부의 감찰을 뜻했다. 공공기관에서 금전을 출납할 때는 반

드시 사헌부의 감찰파견을 요청해야만 했고, 감찰의 입회하에서만 필요 물품이 드나들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을 바로 청대라고 하였다.

청대하러 파견된 감찰은 공공기관의 금전 및 물품의 출납 시 그저 옆에서 이를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련 문서를 검토했고, 출납되는 물품의 수량과 품질도 직접 확인하고 점검했다. 그리고 난 후, 감찰의 직접 서명이 있어야만 물품과 금전이 드나들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일을 맡은 사헌부 감찰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사헌부의

관리는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다. 지평 이상의 고위직의 경우는 나라의 큰일에 시시비비를 가리며 국정을 좌우하는 언관(言官)의 일을 맡았고 그 아래인 감찰직은 언관활동은 하지 않는 대신 각 분야에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일을 맡았다.

## 고위직은 언관 하위직은 감사 역할

감찰은 종6품직의 하급관리였지만 하는 일과 그 범위는 넓고 막중했다. 관리들의 비위를 규찰하고, 재정 부문의 회계 감사를 하였으며 의례 행사 때의 의전 감독 등 감찰은 사회의 중앙과 지방 구석구석을 감시하고 조사하여야만 했다. 감찰은 비록 하급관리직이었지만 요직으로 간주되어 명망 있는 인물들이 임명되었고, 다른 관원들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도록 지위를 보장하

였다. 또 감찰은 그 권위를 보이기 위해 갖정수리에 장식으로 수정을 달고 조복의 관모에 해치를 부착했다. 수정은 모든 일을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의미이며, 해치란 옳은 일과 그른 일을 분간해 착한 사람을 보호하고 악인을 미워한다는 뿔이 하나 달린 전설의 동물이다.

하는 일이 많았던 만큼 감찰은 조선 초기에는 관청을 구성하는 인원수로 볼 때는 많은 편인 20~25명으로 정원을 정하기도 하였다. 이는 조선 후기에 13명으로 고정되었다.

감찰은 행대라고 하여 지방 관리의 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되기도 했는데, 이는 암행어사의 전신에 해당했다. 또 조선시대에는 국가 행사로 제사를 많이 치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물량과 인원이 많았던 만큼 부정의 소지가 많았고 그러기에 감시할 것도 많았다.

감찰은 나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수한 제사와 행사진행에 있어서 재정부터 법도의 준수까지를 감시 감독하여 이를 상부에 보고하는 일을 맡았다. 이외에도 시장에 나가 상거래 시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과거시험장에도 나타나 부정행위나 시험관의 불법행위 등을 감시하였다.

## 국왕의 국가 재정 남용도 허용 안 해

이런 사회전반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일을 모두 맡고 있는 가운데, 감찰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앞서 말한 청대였다. 청대는 감찰의 적극적인 조사와 감시가 동반되는 만큼 해당 관서의 관리들을 긴장시켰고, 그러기에 부정방지 효과가 컸다. 이 청대는 일개 관리의 부정뿐만 아니라 권력가들이 그 권세로 휘두르는 부정을 막는 효과가 있었는데 국왕의 국가

재정 남용 같은 일도 막아내는 기능을 하였다.

고려 말 우왕 때 감찰이던 권간은 광창에서 관료의 녹봉을 지급하는 일을 감찰하고 있었다. 이때 내시가 왕명을 들고 찾아와 그 비축된 녹봉 중에서 일부를 빼내 내시들에게 나누어주라고 하였다. 권간은 이 창고의 쌀은 관료들의 녹봉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니 아무리 왕이라 한들 함부로 사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권간은 왕명을 거역한 죄로 3일간 옥살이를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왕이 국가의 재정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을 막아냈다.

오늘날에는 공직자의 부정이 자행되면 이를 찾아내 처벌하는 방식으로 비리를 경계하지만,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비리가 있기 전에 감찰의 청대를 통해 이를 막고자 하였다. 우리 사회도 이와 비슷한 부정방지 시스템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 한국 야구, 최강멤버로 WBC 우승 ‘도전’

내년 3월 2일부터 3회 대회… 일본·쿠바 등과 4강 다툼

## 달라지는 대진-진행 방식

한국 등 12개국은 본선 자동진출권 받아

참가국 숫자는 16개국에서 28개국으로 늘어났다. 일본(1·2회 대회 우승)과 한국을 비롯해 12개국은 본선 자동 진출권을 받았다. 나머지 16개국은 4개 조로 지역 예선 형식의 예선 라운드를 거친다. 각 조에서 예선 1위를 한 4팀은 본선 라운드에 합류한다. 이렇게 해서 추려진 16개 팀이 본선 1라운드부터 격돌한다. 예선 1조의 스페인, 2조의 캐나다가 본선 티켓을 땀고, 나머지 예선 2개 조에선 브라질과 대만이 통과했다.

2009년엔 본선 1, 2라운드가 더블 엘리미네이션, 4강전부터 토너먼트로 치러졌다.

**‘야구의 월드컵’ 격인 WBC(월드 베이스볼 클래식)는 2013년에 한국이 참가하는 가장 큰 국제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다. 한국은 2006년 1회 대회에서 4강에 들었고, 2009년 2회 대회 땀 결승전을 포함해 일본과 다섯 번이나 싸우며 술한 명승부를 펼친 끝에 준우승했다. 한국은 2013년 3월 2일부터 열리는 3회 대회에서 다시 정상에 도전한다.**

글·성진혁(조선일보 스포츠부 기자)

더블 엘리미네이션(Double Elimination)은 일반적인 토너먼트 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토너먼트에선 한 판만 져도 탈락인데, 더블 엘리미네이션은 일종의 패자전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한 번 지더라도 나머지 경기에서 다 이기면 1위를 할 수 있다.

한국은 2009년 미국 샌디에이고 펫코 파크에서 열렸던 WBC 본선 2라운드 1조에 일본, 쿠바, 멕시코와 편성됐다. 당시 한국은 멕시코를 8대2로, 일본을 4대1로 꺾고 2연승으로 순위결정전에 먼저 진출했다. 일본은 한국에 진 다음 쿠바를 누르고 2승1패로 순위 결정전에 올랐다. 한국은 순위결정전에서 일본에 2대6으로 져 2위로 4강에 진출했다. 한국은 준결승에선 베네수엘라를 10대2로 누르고, 결승에서 일본에 3대5로 져 2위를 했다.

한국은 2013 대회 본선 1라운드 B조에 호주, 네덜란드, 지역 예선 통과팀(미정)과 한 조를 이룬다. 3월 2일부터 5일까지 서로 한 번씩 경기를 해 1, 2위가 2라운드에 오른다. B조를 통과한 두 팀은 2라운드(3월 8~12일)에서 A조(일본·쿠바·중국·지역예선 통과팀)의 1, 2위 팀과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대결하며, 상위 두 팀이 4강에 오른다. C·D조도 이렇게 1~2라운드를 거쳐 준결승에 오를 두 팀을 가린다. 준결승(3월



한국은 최상의 전력을 구축해 2013 WBC 대회에서 첫 우승을 노린다.

17~18일)과 결승전(3월 19일)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AT&T 파크에서 열린다.

## 한국 우승 가능할까

류중일 감독, 사령탑 맡아 최고의 선수단 구성

한국은 2006년 1회 대회 땀 김인식 감독(현 KBO 기술위원장)이 지휘봉을 잡고, 당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던 박찬호, 김병현, 서재응, 최희섭과 일본에서 뛰던 이승엽 등 해외파가 총출동해 4강에 올랐다. 2009년 2회 대회(감독 김인식) 땀 봉준근, 류현진, 윤석민이 버틴 마운드와 김태균, 이범호, 추신수 등이 활약한 타선이 조화를 이뤄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미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걸었던 한국 야구가 또다시 선전하자 외국의 관심도 커졌다.

한국은 2013년 3회 WBC의 본선 라운드에서 일본, 쿠바와 4강 진출을 다툴 전망이다. 사령탑은 삼성을 2012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류중일 감독이 맡는다. 류 감독은 KBO 김인식 기술위원장과 예비명단

을 지난 11월12일 발표했다. 선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예년보다 일찍 최종 엔트리에 가까운 28명을 추렸다.

1루수 부문 선수들의 면면이 가장 화려하다. 일본에서 복귀한 김태균(한화)은 올해 타율 0.363으로 타격왕에 올랐다. 2009년 WBC의 4번 타자로 뛰었던 그는 2013 WBC에서도 중심 타선을 예약했다.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하자마자 퍼시픽리그 타점왕에 오른 이대호(오릭스 버펄로스)도 뽑혔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끝으로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던 이승엽은 다시 태극 문양을 달게 됐다. 이승엽은 2000 시드니올림픽 3·4위전, 2006 1회 WBC 예선 일본전, 베이징올림픽 준결승 일본전과 결승 쿠바전 등 큰 경기에서 한 방을 터뜨리며 ‘국민 타자’의 이름값을 했다.

정규시즌 타격 3관왕(홈런, 타점, 장타율) MVP였던 박병호(넥센)는 밀려났다. 류

중일 감독은 “박병호가 국제대회 경험이 선배들보다 밀린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메이저리거인 추신수(미국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는 불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는 올해 495만 달러의 연봉이 아깝지 않은 성적(타율 0.283, 16홈런, 67타점)을 냈지만 트레이드설이 나도는 등 거취가 확정되지 않아 WBC에 전념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추신수가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할 경우 이승엽과 김현수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다른 내야진은 김상수(삼성), 정근우, 최정(이상 SK), 손시현(두산), 강정호(넥센)로 이뤄진다.

마운드는 2012시즌 다승왕 장원삼과 구원왕 오승환(이상 삼성)을 비롯해 윤석민, 김진우(이상 KIA), 노경은, 홍상삼(이상 두산), 김광현, 박희수(이상 SK), 정대현(롯데), 유원상(LG), 손승락(넥센)이 지킨다. 류현진(한화)은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와 계약을 맺으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 WBC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포수로는 베테랑 진갑용(삼성), 강민호(롯데)가 뽑혔다. 외야수는 김현수(두산), 전준우(롯데), 이용규(KIA), 이진영(LG)가 맡는다. 3회 WBC는 국내 야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국제무대 성적이 국내 리그 흥행에 커다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1995년 540만명을 정점으로 떨어져 가던 관중은 2005년부터 회복하기 시작, 올해는 700만명을 돌파했다. 한국이 2013 WBC에서도 세계 정상급의 경기력을 보인다면 2013시즌 국내 야구의 800만 관중 돌파가 확실시된다.





# 올 연말 공연감상은 가족·연인과 함께

뮤지컬 대작·8090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 선보여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눈의 왈츠

올 연말엔 뮤지컬 대작들을 비롯해 8090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들이 무대에 오른다. 좀처럼 만나기 힘들었던 공연들도 기다린다. 가족, 연인과 함께 연말을 훈훈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연말 공연들을 소개한다.

글 박근희(조선매거진 기자)

아이돌 출신 가수들이 꾸미는 무대는 청소년들의 관심도 높다. <금발이 너무해>로 무대에 올랐던 '리절리 블론드'는 리스 워터스 폰 주연의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한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소녀시대 제사카와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7>에서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인 에이핑크 정은지가 금발의 인기 만점 매력적인 여주인공 엘 우즈 역을 맡아 대결을 펼친다. 제사카는 2009년 <금발이 너무해> 이후 2년 만에 뮤지컬 복귀, 정은지는 뮤지컬 첫 데뷔라 기대를 모은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아티움 현대아트홀에서 지난 11월 16일 막을 올려 내년 3월 17일까지 공연한다.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청소년들에게도 익숙한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을

소재로 한 것이라 청소년 자녀와 함께 볼 만하다. <레미제라블>은 <캣츠> <오페라의 유령> <미스사이공> 등과 더불어 세계 4대 뮤지컬로 꼽히는 작품이다. 1985년 런던 초연 이후 27년 만에 한국 배우들이 한국어로 공연하는 '국내 초연'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공연은 오리지널 버전이 아닌 25주년 버전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전 작품과 다르게 빠른 전개와 역동적인 무대가 인상적"이라는 게 관람객들의 평이다. 11월 3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열린 프리뷰를 시작으로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대구 계명아트센터, 2월 14일부터 3월 10일까지 부산 센텀시티 소향아트센터, 4월 9일부터 5월 9일까지 서울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대장정의 공연을 펼친다.

##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 국내 초연

'사랑'을 주제로 한 무대는 부부나 연인들에게 늘 인기다. 전 세계 1억3000만 관객을 매혹시킨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2005년 이후 7년 만에 국내 무대에 다시 오른다. <오페라의 유령>은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채 오페라하우스 지하에 숨어 사는 음악의 천재 팬텀과 프리마돈나 크리스틴 그리고 크리스틴을 사랑하는 라울 간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담은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런던 초연 25주년을 기념한 월드 투어 공연으로, 팬텀 역의 브래드 리틀과 크리스틴 역의 클레어 라이언, 라울 역의 안소니 다우닝 등이 호흡을 맞춘다. 12월 7





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만날 수 있다.

내년 1월 27일까지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황태자 루돌프>는 국내 초연으로 사랑에 모든 것을 내건진 오스트리아 황태자 루돌프의 실화 '마이얼링 사건'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루돌프 역은 안재욱·임태경·박은태, 루돌프의 연인 마리 베체라 역에는 옥주현·최유하·김보경이 트리플 캐스팅됐다. 이번 공연에서는 고난이도의 안무를 선보이는 '왈츠 신'과 '탱고 신' '스케이팅 신', 눈 내리는 '마이얼링 신' 등 볼거리 가득한 장면들이 펼쳐진다.

이밖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영웅> 등 이미 개막해 연말까지 이어지는 작품부터 <아이다>(2013년 4월 28일까지) <락 오브 에



이지)<~2월 3일> <캐치 미 이프 유 캔>(12월 14일~2013년 2월 9일) <완득이>(12월 14일~2003년 3월 23일) 등 풍성한 무대가 연말을 장식할 예정이다.

### 동심의 세계 '2012 디즈니 온 클래식'

윌트 디즈니 이야기는 어린 자녀뿐 아니라 성인이 된 어른들에게도 친숙하다. 디즈니를 테마로 한 콘서트, 디즈니 온 클래식은 디즈니 속 명곡을 아름다운 목소리와 오케스트라 연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다. 2002년부터 일본 하모니재팬(Harmony Japan)에서 기획돼 10년째를 맞이한 디즈니 온 클래식은 2008년 세종문화회관 최초의 내한공연 당시, 객석 점유율 90% 이상을 달성하며 화제를 모았고, 2008년 인터파크 선정 올해의 클래식 공연 2위에 선정되는 등 검증된 공연이다. 올해 10주년을 기념해 '꿈은 이루어진다'는 테마로 만들어진 '2012 디즈니 온 클래식은 디즈니의 역사와 추억

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무대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12월 28·29 양일간 열릴 이번 내한공연에서는 디즈니의 초기 명작들로 꼽히는 애니메이션 증기선 윌리, 백설공주, 피노키오, 메리 포핀스, 알라딘 등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한 명곡들을 만날 수 있다.

크리스마스의 스테디셀러 발레극 <호두까기인형>은 독일의 낭만파 작가인 호프만이 쓴 동화 <호두까기인형과 쥐의 왕>이라는 동화의 줄거리를 프랑스의 극작가 알렉산더 뒤마가 각색한 것. 고전발레 안무가 마리우스 프티파(Marius Petipa)와 그의 조수 레프 이바노프(Lev Ivanov)가 안무해 1892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된 이후 해마다 전 세계 수백 개의 극장에서 다양한 무용단을 통해 공연돼오고 있다. 올 연말에도 12월 7·8일 과천 시민회관의 <서울발레시어터 호두까기인형>을 시작으로 12월 18일부터 25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의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영등포아트홀의 <와이즈발레단 호두까기인형>,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유니버설아트센터의 <유니버설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까지 공연단 별로 골라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 30~40대 향수 자극하는 콘서트 풍성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불붙은 8090들의 향수는 tvN에서 방영한 <응답하라, 1997>에 이어 연말 공연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2월 29일 올림픽공원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젊음의 행진 레전드'는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반을 살았던 이들의 향수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무대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당시 국내 가요계를 장악했던 'Big4' 소방차, 박남정, 강수지, 김완선이 무대에 오른다. 총 3부로 나뉘는 이번 공연의 1부는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김완선의 '뽕애로는 우릴 보고 웃지', 박남정의 '널 그리며',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등 히트곡을 선보이며, 2부는 소방차, 김완선, 박남정, 강수지가 꾸미는 콜라보레이션 무대, 3부는 관객과 함께하는 뒤풀이 형식의 무대로 꾸며진다.

롯데월드 어드벤처&가든스테이지에서

12월 1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인 2일 오전 5시까지 열리는 '응답하라 1997 올나잇파티(All night party)'는 1990년대 후반 가요계를 장식했던 가수들이 나와 추억의 무대를 장식하는 콘서트다. HOT의 토니안, 썬스키의 은지원, DJ DOC 등 아이돌 1세대들과 '슬프도록 아름다운'의 K2 김성민, 한스벤드 등이 나와 화제 속에 종영한 드라마 <응답하라, 1997> 속의 OST를 열창한다.

연말, 한바탕 시원하게 웃고 싶다면 토크콘서트나 개그콘서트, 마술쇼도 괜찮다. '2012 킬투 크리스마스쇼-꼭 찬 쇼'는 '국민개그 듀오' 킬투가 꾸미는 무대로 킬투의 연말 콘서트는 인터파크 연간 예매순위 7년 연속 상위 랭크, 매년 전국 8만명 이상이 관

람한 콘서트의 스테디셀러로 통한다. 올해 역시 다양한 '우대석'을 마련했다. 프로포즈 연인석은 물론, 20년 동안 한결같이 킬투를 지지해준 여성팬들을 위한 여성우대석, 나홀로 관객을 위한 나홀로석,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지만 주머니가 가벼워 슬픈 커플을 위한 견우직녀석 등 킬투쇼다운 익살스런 좌석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12월 21일부터 25일, 30일부터 31일까지 코엑스 Hall C에서 총 11회 공연한다.

#### 그 밖의 주목할 만한 연말연시 공연

| 공연명              | 내용                                                                                               | 기간 / 장소                            |
|------------------|--------------------------------------------------------------------------------------------------|------------------------------------|
| 맨 오브 라만차         |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 원작을 뮤지컬로 만날 수 있다.                                                               | 12월 31일까지 / 샤롯데씨어터                 |
| 락 오브 에이지         | 1980년대 할리우드 최고의 락클럽 '더 버번'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젊은이들의 꿈과 사랑, 열정과 도전의 이야기. 극 중 흘러나오는 1980년대 명곡들이 추억에 젖게 한다. | 2013년 2월 3일까지 /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      |
| 지킬 앤 하이드         | 고집스럽게 자신의 신념을 밀어붙이는 지킬과 그런 그의 신념을 저지하려는 위선자들을 처단하는 하이드를 통해 인간의 이중성을 드러낸 작품.                      | 2013년 1월 8일~2월 1일 / 예술의전당          |
| 넌센스              | 수녀 52명의 정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선 5명의 수녀들의 좌충우돌 해프닝을 담은 작품. 기발한 발상과 위트 있는 재치로 큰 웃음을 선사한다.            | 12월 14일~2013년 1월 27일 / 대학로 예술마당 4관 |
| 최현우 매직콘서트 설록홀즈 2 | 10년 넘게 지속돼온 마술쇼, '설록홀즈 - 사라진 마술사' 이후 더 커진 스케일과 탄탄한 스토리가 돋보인다.                                    | 12월 8~31일 / 인터파크 아트센터 아트홀          |
| 개그 슈퍼 콘서트 2012   | 2012년 <개그콘서트>에서 방영된 코너들 중 인기 코너만을 모은 2012년 총결산 개그공연.                                             | 12월 8일 / 세종대학교 대양홀                 |



# 무상보육 누리과정 3~4세까지 확대 예정

2013년부터 만 0~2세는 소득수준 따라 차등지원으로 바뀌

2012년 0~2세 모든 아동에 보육비를 지원하는 획기적인 무상보육 정책이 마련됐지만, 2013년에는 이 같은 보육정책이 다소 바뀔 것으로 예정돼 있어 해당 아동이 있는 가정은 새로운 보육정책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2012년에는 전 계층의 0~2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2013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보육비 전액이 지원되고 소득 상위 30%는 지원받는 보육비(만 0세 월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와 어린이집 원비의 차액(월 10만~2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육비 지원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제공되고 있는데, 2013년부터는 맞벌이 가정과 전업주부 가정에 차등을 두어 맞벌이 가정에는 전일반(12시간) 바우처를, 전업주부 가정에는 반일반(6시간)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업주부의 경우 현재 지원받는 금액의 60%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며, 반일반 이상의 추가 비용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나 직업교육 중인 전업주부 등 보육이 필요한 가정은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소득하위 70% 가정엔 월 10만원 양육지원금

또 정규 보육시간 외 어린이집을 추가 이용하는 경우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에게 편의를 제공하지만, 이용 비용은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보육시설 외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부모가 외출, 병원 이용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어린이집, 지방보육정보센터 등을 활용해 일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만 3~4세의 경우 전 계층으로 보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2012년의 경우 3~4세는 소득하위 70%에게만 보육비가 지원됐으며 5세는 전 계층에 보육비 지원(월 20만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2013년에는 3~5세 전 계층 무상으로 보육이 가능해진다. 2012년만 5세에게 적용됐던 ‘누리과정’이 3~4세까지 확대되고, 전 계층의 만 3~4세가 기관에 다닐 경우 보육비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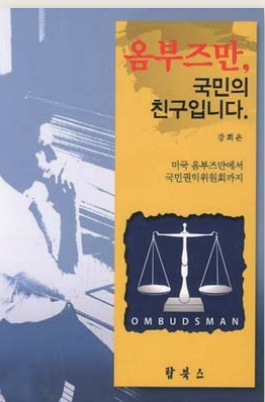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아도 보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긴다. 3~4세 아동 중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에는 소득하위 70% 가정에 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이 신설돼 지급된다.

이는 시설 보육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조부모 등 가족이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나 도서, 벽지 등 이용 가능한 시설이 부족하여 시설 보육이 곤란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 것이다.

글·권세진 기자



# 국민과 같은 편에 선 ‘민원 해결사’



오부즈만, 국민의 친구입니다.  
강희은 지음  
탐북스 | 340쪽 | 2만원

미국 아이오와주(州) 스투어트시(市)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지난 2007년 시 거리감독관이 시의 제설(除雪)장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으며, 시장 및 시의원들에게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주 오부즈만에게 제기했다.

조사에 들어간 오부즈만은 거리감독관이 제설장비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초과근무수당까지 받았으며, 자신의 비리를 고발한 민원인에게 보복성 벌금을 부과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오부즈만은 “시장 등 감독자는 소속 공무원이 공용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파면 등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기 위해 그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등 6개항의 개선방안을 권고했으며, 시 당국은 이를 모두 수용했다. 이상은 〈오부즈만, 국민의 친구입니다.〉에 나오는 아이오와주 오부즈만의 활동사례다.

‘오부즈만(Ombudsman)’이란 ‘행정의 적절성(적법성·타당성)을 감독함으로써 정치·행정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국민의 불만·고충을 조사·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 국내외 오부즈만의 연혁과 주소 상세히 소개

물론 이러한 고충처리제도는 나라와 시대를 초월해 존재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신문고(申聞鼓)제도나 격쟁(擊鉦)제도, 압행어사 제도 등이 있었다. 정부수립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민원(民願)이나 고충처리제도가 있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오부즈만은 행정학이나 행정법 교과서 구석에 들어 있는 ‘남의 나라 이야기’에 불과했지만, 오늘날에는 상당히 익숙한 개념이 됐다. 여기에는 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오부즈만 기관의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 중소기업청은 ‘기업호민관’이라는 이름의 오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방위사업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서도 오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서울시에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대한무역투자자진흥공사(KOTRA)에서는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코레일 등에서는 청렴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언론사에서도 오부즈만이라는 이름으로 독자들의 고충이나 이의제기를 수렴하고 있다.

이 책은 이처럼 다종다양한 국내외의 오부즈만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미국 오부즈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까지’라는 부제(副題)에서 보듯 이 책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장·제도개선담당관·공익심사정책과장 등을 지냈고, 미국에서 관련 직무연수를 받은 저자의 경험이 녹아 있다.

국내외 오부즈만의 연혁과 운영, 주요 사례는 물론, 외국 오부즈만들의 웹사이트 및 이메일 주소까지 소개하고 있어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체의 오부즈만이나 민원 담당자들이 한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다.

글·배진영 기자



# 무상보육 누리과정 3~4세까지 확대 예정

2013년부터 만 0~2세는 소득수준 따라 차등지원으로 바뀌

2012년 0~2세 모든 아동에 보육비를 지원하는 획기적인 무상보육 정책이 마련됐지만, 2013년에는 이 같은 보육정책이 다소 바뀔 것으로 예정돼 있어 해당 아동이 있는 가정은 새로운 보육정책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2012년에는 전 계층의 0~2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2013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보육비 전액이 지원되고 소득 상위 30%는 지원받는 보육비(만 0세 월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와 어린이집 원비의 차액(월 10만~2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육비 지원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제공되고 있는데, 2013년부터는 맞벌이 가정과 전업주부 가정에 차등을 두어 맞벌이 가정에는 전일반(12시간) 바우처를, 전업주부 가정에는 반일반(6시간)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업주부의 경우 현재 지원받는 금액의 60%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며, 반일반 이상의 추가 비용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나 직업교육 중인 전업주부 등 보육이 필요한 가정은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소득하위 70% 가정엔 월 10만원 양육지원금

또 정규 보육시간 외 어린이집을 추가 이용하는 경우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에게 편의를 제공하지만, 이용 비용은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보육시설 외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부모가 외출, 병원 이용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어린이집, 지방보육정보센터 등을 활용해 일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만 3~4세의 경우 전 계층으로 보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2012년의 경우 3~4세는 소득하위 70%에게만 보육비가 지원됐으며 5세는 전 계층에 보육비 지원(월 20만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2013년에는 3~5세 전 계층 무상으로 보육이 가능해진다. 2012년만 5세에게 적용됐던 ‘누리과정’이 3~4세까지 확대되고, 전 계층의 만 3~4세가 기관에 다닐 경우 보육비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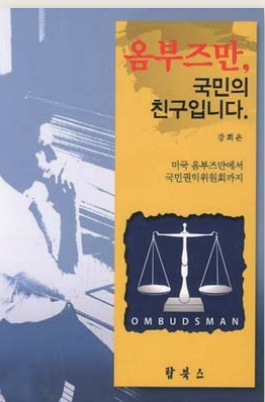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아도 보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긴다. 3~4세 아동 중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에는 소득하위 70% 가정에 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이 신설돼 지급된다.

이는 시설 보육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조부모 등 가족이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나 도서, 벽지 등 이용 가능한 시설이 부족하여 시설 보육이 곤란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 것이다.

글·권세진 기자



# 국민과 같은 편에 선 ‘민원 해결사’



오부즈만, 국민의 친구입니다.  
강희은 지음  
탐북스 | 340쪽 | 2만원

미국 아이오와주(州) 스튜어트시(市)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지난 2007년 시 거리감독관이 시의 제설(除雪)장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으며, 시장 및 시의원들에게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주 오부즈만에게 제기했다.

조사에 들어간 오부즈만은 거리감독관이 제설장비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초과근무수당까지 받았으며, 자신의 비리를 고발한 민원인에게 보복성 벌금을 부과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오부즈만은 “시장 등 감독자는 소속 공무원이 공용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파면 등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기 위해 그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등 6개항의 개선방안을 권고했으며, 시 당국은 이를 모두 수용했다. 이상은 〈오부즈만, 국민의 친구입니다.〉에 나오는 아이오와주 오부즈만의 활동사례다.

‘오부즈만(Ombudsman)’이란 ‘행정의 적절성(적법성·타당성)을 감독함으로써 정치·행정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국민의 불만·고충을 조사·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 국내외 오부즈만의 연혁과 주소 상세히 소개

물론 이러한 고충처리제도는 나라와 시대를 초월해 존재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신문고(申聞鼓)제도나 격쟁(擊鉦)제도, 암행어사 제도 등이 있었다. 정부수립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민원(民願)이나 고충처리제도가 있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오부즈만은 행정학이나 행정법 교과서 구석에 들어 있는 ‘남의 나라 이야기’에 불과했지만, 오늘날에는 상당히 익숙한 개념이 됐다. 여기에는 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오부즈만 기관의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 중소기업청은 ‘기업호민관’이라는 이름의 오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방위사업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서도 오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서울시에서는 시민감사오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대한무역투자자진흥공사(KOTRA)에서는 외국인투자오부즈만을, 코레일 등에서는 청렴오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언론사에서도 오부즈만이라는 이름으로 독자들의 고충이나 이의제기를 수렴하고 있다.

이 책은 이처럼 다종다양한 국내외의 오부즈만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미국 오부즈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까지’라는 부제(副題)에서 보듯 이 책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장·제도개선담당관·공익심사정책과장 등을 지냈고, 미국에서 관련 직무연수를 받은 저자의 경험이 녹아 있다.

국내외 오부즈만의 연혁과 운영, 주요 사례는 물론, 외국 오부즈만들의 웹사이트 및 이메일 주소까지 소개하고 있어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체의 오부즈만이나 민원 담당자들이 한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다.

글·배진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10콜센터가 5년 5개월 만에 천만 콜을 돌파했다. 또한, 권익위는 청렴연수원 개원, 강릉상담센터 개소 등을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글·권세진 기자



### 110 상담전화 5년 5개월 만에 천만 콜 돌파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민원을 전화로 상담·안내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가 2007년 5월 개소 이후 만 5년 5개월 만에 이용 누적 천만 콜 돌파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 청사에서 천만 번째 상담전화를 한 시민과 110콜센터 우수 이용자 등을 선정해 기념식을 가졌다. 다방면에서 모범이 된 우수 상담사 4명에게도 표창이 수여됐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을 누르면 전화상담과 휴대전화 문자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청각·언어장애인들을 위한 인터넷 화상수화·채팅 상담(www.110.go.kr)과 씨토크 영상전화 수화상담(070-7947-8110, 8111, 9020)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10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m.110.go.kr)에서도 예약상담 및 문자상담이 가능하다. SNS 실시간 상담(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도 받고 있다.

한편 110콜센터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짓' 공공기관 화상수화통역서비스'는 2012년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현장 평가단은 '110화상수화통역서비스'가 청각 언어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살피고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나온 정책'이라는 점에 큰 호응을 보냈다.

### 고충민원 처리 우수기관 인증

방위사업청, 산림청, 경상남도, 안양시, 강동구, 서대문구, 제천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한 2012년 고충민원 처리 우수기관으로 뽑혀

11월 23일 권익위 청사 대강당에서 인증서를 받았다.

인증을 신청한 17개 기관 중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평가 등을 통해 고충민원을 모범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7개 기관이 선발됐으며, 이들 기관은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위원을 옴부즈만으로 지정해 만족도가 낮아 다시 제기된 민원을 옴부즈만이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처리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 ‘산업별 기업 윤리경영 모델’ 책으로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제단체와 기업에서 윤리경영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담은 '산업별 기업 윤리경영 모델'을 개발해 책자로 발간했다. 국내 기업들이 최근의 국제적 윤리경영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경영에 도입·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번에 개발한 산업별 기업 윤리경영 모델은 기업들이 윤리경영에 대한 국제표준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ISO 26000, GRI 가이드라인 등의 최신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4개 산업(제조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도매·소매업)으로 구분하여 개발함으로써 기업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 책에는 모델뿐만 아니라 윤리경영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국내외 관련 규정·사례를 다양하게 수록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한 지침서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별 기업 윤리경영 모델'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자료/기업윤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국민권익〉2012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식지, SNS 등을 통해서 국민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지속적인 감성적인 국민과의 소통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12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권익위의 격월간 소식지 〈국민권익〉이 '클린콘텐츠상'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은 최신 권익구제 정보(고충민원처리 및 행정심판 사례)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생생한 스토리로 구성하여 다양한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사보부문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사)한국사보협회에서 기업문화 발전 및 기업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보, 홍보물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우수 제작물 및 기관을 선발·시상하고 있다. 또한, 권익위는 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네티즌 눈높이의 생활 밀착형 콘텐츠로 공감을 이끌어내고, 따뜻하고 친근하게 소통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아 지난 11월 26일 〈제5회 대한민국 소셜미디어대상〉에서 중앙행정기관 종합대상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에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국민접점 채널을 개설하여, 국민과의 교류·공감 확대를 위해 기울인 남다른 노력을 외부에서도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 국민신문고에 한·우즈벡 쌍방향 민원창구 개통

국민권익위원회는 17만3600여 명에 달하는 우즈베키스탄 거주 한국인과 1만1200여 명에 달하는 한국 거주 우즈베키스탄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범정부 국민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에 한·우즈베키스탄 쌍방향 민원창구를 10월 31일 개통했다.

이번 민원창구 개통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한국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인이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자국어로 민원을 신청하면 우즈베키스탄 또는 한국의 행정기관에서 답변을 하고, 민원인은 결과를 자국어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권익위는 재외동포나 한국 거주 외국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8년 6월부터 영어를 시작으로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10개국 외국어 민원창구를 국민신문고에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 권익위, 청주시 청렴연수원 개원식

국민권익위원회가 11월 23일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 구 청주지방법원 부지에 국내 첫 청렴교육 전문 훈련기관인 청렴연수원(원장 박민주)을 개원했다.



대지면적 1만6200㎡, 건물연면적 3220㎡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개원하는 청렴연수원은 지난 1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10월부터 청렴교육 과정을 시범 운영해오다가 이번에 정식 개원하였다. 올해 연간 청렴 집합교육 2800여 명, 청렴 사이버교육 6만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청렴 집합교육 5000명, 청렴 사이버교육 9만명의 교육생을 배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첫 부패방지 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출범한 청렴연수원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주로 하게 되며, 사이버를 통한 청렴 교육과 청렴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드라마 등 청렴 콘텐츠를 개발해 알리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강릉시청에 권익위 강릉상담센터 개소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8일 강릉시청에서 박대영 사무처장과 최명희 강릉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강릉상담센터(033-640-4804)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강릉시청 민원실 내에 설치되는 권익위 강릉상담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전문상담위원들이 매주 정해진 요일 오후에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행정·법률과 관련된 생활민원에 대해 무료상담을 실시한다.(표 참조) 또한 전직공무원인 명예민원상담관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하면서 민원처리 절차 등을 상담, 안내할 예정이다.

| 상담 요원   | 요일  | 시간          | 방법         | 상담 내용     |
|---------|-----|-------------|------------|-----------|
| 명예민원상담관 | 월~금 | 09:00~18:00 | 전화<br>/ 방문 | 민원처리 절차 등 |
| 변호사     | 월   | 14:00~17:30 |            | 민·형사      |
| 법무사     | 수   |             |            | 등기·호적     |
| 공인노무사   | 금   |             |            | 노무·산재     |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등을 엽서를 통해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해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국민권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응모마감 12월 31일)



##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인기드라마 '넝쿨당'에 권익위가 떴다는 기사를 보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 드라마를 보던 중 차윤희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자 110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장면을 보고 '저게 뭐지?'라는 의문을 가졌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처음 110서비스를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외우도록 강요하는 캠페인 광고보다 드라마 속 구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네요.

(이정호·충북 청주시 상당구)

조사관의 현장이야기를 읽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6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아들과 그들의 증언을 듣기 위해 마나면 섬으로 출장을 가는 조사관의 모습이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의 활동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한다 해도 그분들의 깊은 관심에 많은 민원인들이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선천영·전남 곡성군 석곡면)

이번 호에는 드라마 이야기와 건강, 여행, 휴대폰거치대 만들기 등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드라마 속 상황을 통해 언제 110이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급하게 하는 식사가 고지혈증과 비만을 부른다는 건강 정보, 강원도 정선 여행 정보 등도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휴대폰거치대도 아이들이 즐겁게 만들었네요. 풍성한 내용으로 늘 독자에게 도움을 주는 〈국민권익〉이 되길 바랍니다.

(조봉래·부산 금정구 구서2동)

### 지난 호 퍼즐 정답

|                |                |                |                |                |                |
|----------------|----------------|----------------|----------------|----------------|----------------|
|                |                |                | <sup>1</sup> 가 | 까              | <sup>2</sup> 이 |
|                | <sup>3</sup> 동 | 치              | 미              |                | 효              |
| <sup>4</sup> 관 | 행              |                |                | <sup>5</sup> 추 | 석              |
|                |                | <sup>6</sup> 아 | <sup>7</sup> 마 | 도              |                |
|                | <sup>8</sup> 소 | 리              | 개              |                |                |
|                |                | 랑              |                |                |                |

9·10월호를 읽고 117분의 독자분이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드라마 '넝쿨당'에 등장한 110을 반갑게 받아주시는 독자들이 110을 홍보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다며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60년 만에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게 해준 조사관 이야기와 김훈 중위 아버지 인터뷰를 감동 깊게 읽었다는 독자분들이 많았습니다. 권익위 식구들의 노인복지센터 봉사활동을 칭찬해주신 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독자분들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국민권익〉지를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더 크게 들겠습니다.

### 지난 호 퍼즐 정답자와 의견 채택된 분

조용호(대구 남구) 우향화(서울 강남구) 김화영(부산 서구) 전경욱(경기 평택시) 백성현(경북 칠곡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신뢰받는 공직사회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청렴 전문교육의 중심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이 개원하였습니다

청렴연수원은 공직 내 청렴의식 제고와 우리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 \* 청렴 집합교육 : 공직자 생애주기별과정, 맞춤형과정, 청렴강사양성과정 등 총 22개 과정 2,910명 이수('12년 기준)
- \* 청렴 사이버교육 : 알기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공직자의 사회공헌활동 등 4개 과정 60,000명('12년 기준)  
※공공기관 자체운영 155개 기관 290,733명 이수('11년 기준)
- \* 청렴콘텐츠 보급 : 다큐멘터리 '청렴과 도덕성, 그 숨겨진 진실', 애니메이션 '좌충우돌 뭉치네 집' 시리즈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보급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3-5(청주 '기적의 도서관' 맞은 편, 구 법원자리)

☎ 043-901-6100, www.acrc.go.kr/edu